



미래부 이전 제외... 격랑 휩싸인 세종시

이춘희 시장 “법률위반, 제2의 세종시 수정안으로 충청인 무시”

이춘희 세종시장은 8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를 과전에 잔류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을 무시하며 제2의 세종시 수정안에 비견되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날 오후 이춘희 세종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부 과전 잔류 기도에 대한 세종시의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최근 행정자치부가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만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행정기관 이전 고시안과 계획을 마련해 이달 23일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안전처와 혁신처의 이전은 다행스럽지만 미래부와 해양수산부 이전 문제를 매듭짓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 고시를 위한 공청회를 배제한 것은 이 부처를 과전에 잔류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과 불신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제 16조는 6개 부처를 제외한 모든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설된 미래부는 당연히 세종시로 옮겨야 하며 이전을 앞버리는 것은 법과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지난달 황교안 총리께서 ‘미이전 기관의 세종시 이전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과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세종시에 입주해 있는 해양수산부 이전 고시를 이루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려는 시도가 중단된 게 아니라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을 미루거나 중단하려는 시도는 국민적 비난을 부를 것이며 제2의

세종시 수정안으로 20만 세종시민과 500만 충청인을 무시하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해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국민적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다.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을 관철시키기 위해 세종시민과 충청인은 물론 지역의 정치인,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세종시당위원장 유한식도 이날 성명을 통해 미래부의 과전 잔류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세종시로 조속한 이전을 촉구했다.

신설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당연하며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은 국가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설치된 세종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세종시당은 경제·사회부처의 대부분이 세종청사에 정착한 상태에서 업무협약이 많은 미래부가 이전하지 않는 것은 정책과 업무협약이 원활히 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이미 세종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에 대한 이전고기도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명확한 이전고시를 통해서만이 정부 조직과 업무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을 촉구했다.

세종=김정환 기자



안희정 “가로림만 교량 임기 내 가시화”

태안군 시작으로 민선6기 첫 시·군 순방길 올라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8일 태안군을 시작으로 민선6기 첫 시·군 방문에 나섰다.

안 지사의 이번 시·군 방문은 시·군 관련 각종 도정 현안을 살펴보고 비전을 공유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태안군 방문은 한상기 군수와 유익환 도의회 부의장, 군의원 등과 환담을 가진 뒤, 지역 지도자 200여명과 대화를 갖았다.

대화에 나선 참석자들은 안 지사에게 수산정책 강화, 유류유출사고 보상 조속 추진, 가로림만 개발 대책, 지방어항 개발, 안면도 관광지 개발 문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 지사는 “우리는 현재 환황해 아시아 경제 시대, 새로운 경제적 변명과 도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며 “수산업에 서부터 관광산업까지 바다의 부가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한 새로운 미래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등을 제시했다. 핵심 사업으로는 ▲안면도 국제관광지 조성 ▲만리포 관광거점 조성 ▲와도·가의도 도서종합개발 ▲가로림만 발전종합계획 수립 ▲태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 ▲수산물가공센터 및 바다 낚시공원 건립 ▲해심특화단지 조성 ▲인공어초 등 연안 바다복합 조성 사업 ▲차세대 상업용 무인선박 기술실용화센터 구축 ▲서해서 산업철도(아산인주-태안 안흥)구축 ▲가로림만 교량 연결 ▲태안항·안흥항·북적별비도 국가연안항 개발 등을 내놴다.

한편, 안지사는 시·군 방문 당일 오후 시간대 통영하하 제도, 상안하, 입주하도, 학부하도 등을 안 지사가 직접 찾아가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방식의 와유를 진행하고 있으며, 참가 신청은 충남도청 또는 안희정 지사 비서실 트위터나 페이스북 쪽지로 하면 된다.

안 지사는 오는 17일 부여군을 방문할 계획이다.

내포=이지용 기자

공무원술 · 골프 접대받으면 5배 징계부가금

인사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 입법예고...부과대상 확대

앞으로는 공무원이 술이나 골프 접대 등을 받거나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 받으면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을 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8일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징계절차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의 징계부가금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금품·향응” 수수 비위 대상에 ‘금전’은 물론 ‘유가증권, 증권, 부

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관람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이 포함돼 징계부가금을 내게 된다.

또 음식물·주류·골프 등 접대·향응,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에도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기존 법에서는 징계부가금 부과가 불가능했던 이권 부여(합바집 운영 등), 친인척 취업, 승용차 무상 취득 등의 비위에 대해서도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무원의 성폭

력·성희롱 징계절차에 성 관련 외부 전문가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부기관장에서 고위 공무원으로 확대, 선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정만석 인사처 율리북무국장은 “이번 징계령 개정안은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고 성폭력 비위에 그 동안 피해자 보호기능이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참여제도를 도입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홍주천년! 역사인물 열전!

2015 홍성역사인물축제

2015 Hongseong Great men Festival

2015.9.11 금 - 13 일 홍주읍성 일원

연월일	주요 일정
9. 11 (금) 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주천년 전통축제 광안대제 (12:00) 대행거점제 (14:00) 주제공연 역사인물 6인 열전 (17:30) 역사인물 걸작연극 '그날의 도연' (20:00)
9. 12 (토) 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주읍성 수수 박물관 '갈매나무' (14:00/16:00) 주제공연 역사인물 6인 열전 (18:00) 한민문화·상위역 사대교향 관현 (19:30)
9. 13 (일) 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가무악발원대회 (11:00) 홍주읍성 수수 박물관 (14:00/16:00) 홍주천 가로 축제열전 (17:00)
계속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공연 '명량' 역사인물 제법 홍성농촌체험마을 여행 홍주천, 역사인물 미디어 쇼 역사인물 배 포포촌 등

홍성소리의 명인 장사익 공연 9.12(토) 19시 30분



산학협력선도대학 전국 최고... 실무형 인재양성



단국대학교는 지난 5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연차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전국 최고점수를 획득했다. 이로써 단국대는 2012년 링크사업 시작 이래 1차년도 연차평가와 이듬해 1단계 연차평가(1, 2차년 합산)에 이어 이번 3차년도 연차평가까지 3년 연속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획득했다. 이번 연차평가에서 단국대는 실무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과 가계기업과의 산학협력이 잘 이루어진 것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업맞춤형 현장실습 및 인턴십 ▲창조적 캠퍼스디자인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 ▲창업캠프 및 창업사관학교 등 교육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159개 가계기업에 학생들이 취업하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산학협력단과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행정/경영기술/디자인/특허 등 신생 벤처기업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는 시스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렇듯 실무형 인재양성에 힘쓰는 단국대학교의 2016학년도 수시 입학전형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주>

▲ 본·분교(죽전·천안) 통합, 캠퍼스체제 운영

죽전-IT/CT, 천안-BT/외국어 특성화 단국대학교(총장 장호성)는 2014학년도부터 본교와 분교로 구분되던 죽전캠퍼스와 천안캠퍼스를 통합해 1개 대학(One University), 2개 캠퍼스(Two Campus) 체제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양캠퍼스 모두 본교의 지위를 가지고 특성화 캠퍼스로 운영되며, 재정, 행정, 인적 자원의 효율적 투자가 가능해졌다.

단국대는 캠퍼스 체제 전환을 위해 최근 몇 년간 중박학과를 조정하고 특성화분야 집중 투자 및 연구, 산학협력 활성화 등을 추진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죽전캠퍼스는 전통적으로 강점을 보여 온 인문학, 사회과학 분야와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가 집약되어 있는 캠퍼스의 입지여건을 토대로 정

및 치과대학병원, 기초과학, 생명과학 관련 전공 등의 생명과학분야의 인프라를 활용해 BT(생명과학) 특성화 캠퍼스로 그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으며, 몽골학, 중동학, 포르투갈어 등 총 10개의 외국어 및 지역학 전공을 바탕으로 외국어분야 특성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학문단위 간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해 대학의 연구 및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각종 외부 평가와 재정지원 사업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규 교수를 대거 채용하고, 장학금은 303억원(2011년)에서 730억원(2014년)으로 두 배 이상 확충했으며, 학생 주거 공간인 기숙사 수용인원도 대폭 확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 전국 최초로 천안캠퍼스에 개관한 공공기숙사는 사립대 기숙사비 평균금액의 60% 수준에 해당하는 저렴한 비용과



대했다.

▲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단국대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정부로부터 약 13억원을 배정받았다. 교육부·대교협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입학전형 개선 및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중점 평가해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단국대는 정부의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작년에 수시 구술면접·적성고사를 폐지하였으며, 입시전형 간소화를 단행했다.

▲ 단국대 수시모집 전형 가이드

학생부교과전형 수능최저 완화,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없이 서류 100% 선발 단국대 죽전캠퍼스는 수시 456% 정시 422%, 천안캠퍼스는 수시 456% 정시 544%를 각각 선발한다. 논술우수자전형(죽전)은 356명을 선발하며 사교육 없이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다. 인문계열은 주제어 찾기, 요약능력, 비교설명능력, 해결방안(비판능력)을 평가하며 자연계열은 단계별 제시능

력을 반영한 부분 점수를 부여한다. 출제진 외에 고교 교사가 참여하여 출제과정, 출제난이도 등 수험생의 입장에서 출제문제를 검토하는 등 공교육 정상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논술고사는 수능 이후인 11월 14일(자연), 15일(인문(건축학과)) 시행된다. 건축학과는 인문계열 문제가 제공된다.

학생부교과우수자전형은 죽전캠퍼스의 경우 수능최저기준이 인문(국B, 수A 영 중 2개 합 6등급), 자연(국A, 수B, 영 중 2개 합 7등급)으로 완료되었다. 천안캠퍼스는 변동 없이 인문(국(AB), 수(AB), 영 중 국어+1개 합 7등급), 자연(국(AB), 수(AB), 영 중 수학+1개 8등급), 간호학과(국(AB), 수(AB), 영 중 2개 3등급)를 적용한다. 903명(죽전 414명, 천안 489명)을 선발하며 학년 구분 없이 100% 교과성적을 반영한다. 지원자는 모집단위별 반영 수능영역유형을 모두 응시하여야 한다. 전년도의 경우 수능최저기준을 통과한 비율은 죽전 인문(42%) 자연(47%), 천안 인문(28%) 자연(49%) 등 전체적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정원내 선발인원이 전년보다 88명이 늘어났고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면접고사가 없다. 대다수 학생부종합전형

은 2016년 2월 졸업예정자만 지원 가능하나 창업인재/특성화고졸재직자는 졸업자도 지원 가능하며 창업인재전형(죽전캠퍼스)은 교사추천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국가보훈대상자가 올해부터는 신설된 고른기회학생전형(100명)으로 편입되었고, 고른기회학생전형은 국가보훈대상자 외에 서해5도, 만학도, 장애인 등 대상자가 지원 가능하다. 이 중 장애인 등 대상자는 죽전캠퍼스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은 기존의 다문화가정, 다자녀(4인), 소아암병력자 외에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환경미화원 이상 10년 이상 재직의 자녀, 의사상자 본인과 자녀까지 지원자격을 확대되었다. 직업군인(장교, 준사관, 부사관) 자녀는 기존 20년 재직에서 10년 재직으로 기간이 단축되어 지원자격의 문턱을 낮추었다.

김정환 기자



보통신(IT)과 문화콘텐츠(CT)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천안캠퍼스는 기존 의대/치대/약대, 단국대병원

(월 19만원대)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큰 주목을 받았다. 올해 죽전캠퍼스 공공기숙사가 준공됨에 따라 약5000명으로 기숙사 수용인원이 확

△수시모집 원서접수 : 2015. 9. 11(금) - 9. 15(화) 17:00까지 △문의전화 : 죽전캠퍼스 031-8005-2550~3, 천안캠퍼스 041-550-1233~6 입학안내 홈페이지 : <http://ipsi.dankook.ac.kr>

● 동 정 ●●

학부모 대상 특강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9일 오후 2시 20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스티브 김 초청 연수 참석자 학부모 대상 특강.

대통령상 동판제막식



김인식 대전시의회의장= 9일 오전 10시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대전 정책 엑스포 개최식 참석, 오전 11시 도안 8블럭 금성백조메이지 '살기 좋은 아파트' 대통령상 동판제막식 참석.

어린이집 운영위 안전간담회



박용갑 중구청장= 9일 오후 2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어린이집 운영위 안전간담회' 참석.

대통령상 동판제막식



허태정 유성구청장= 9일 오전 10시 도안7단지 금성백조메이지 백조의호수아파트에서 열리는 2015년 살기좋은 아파트 대통령상 동판제막식 참석.

"미래창조과학부 특별법에 따라 당연히 세종시로 이전해야"

대전시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과천청사에 잔류하는 방향으로 잠정결정한 행정자치부의 입장에 대해 행정도시특별법 제16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당연히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순철을 정책기획관은 "행복도시특별법 제16조의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에 의하면 세종시 이전계획에서 제외되는 부처로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를 명기했다"면서 "특별법은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이전계획에서 제외되는 그 외의 부처에 대한 세종시 이전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손 기획관은 "국무총리가 지난 8월 25일 세종시 지원위원회에서 신설부처 이전에 대해 전향적인 지지를 한 바 있어 기대가 컸는데 아쉽다"면서 "과해벌트의 정상 추진 및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입국의 상징성 측면과 중앙부처 이전을 통한 국토균형발전과 세종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라도 미래창조과학부는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호 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市 식품안전 특별 대책팀 가동

세계양봉대회 대비, 역·터미널·행사장 주변 음식점 등 128개소 사전 위생점검

대전시는 '44회 2015 대전세계양봉대회 및 Bee! Bee! 축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식품안전 특별대책팀'을 가동한다. 식품안전 특별대책팀은 9월 9일부터 9월 20일까지 12일동안 ▲상황관리반 ▲안전점검반 ▲신속검사반으로 구성되어 행사장주변 음식점 및 행사장 내 식음료 시설

에 대한 위생 점검 및 식중독 예방 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시는 9일부터 관람객의 주 이동 경로인 역과 터미널 주변,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128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행사기간 중 6개반 12명(시, 구)의 근무조를 편성하여 식중독 비상근무 상황실을 운영한다.

또 11일부터는 시와 구청 합동으로 행사 만찬장 식음료 조리업체, 행사장 인접 음식점, 푸드코트, 참가단 예약 숙박업소 등 36개소에 대해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병행 하는 등 위생 상태를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송진만 식품안전과장은

"요즘 환절기라 일교차가 심하여 보다 철저한 식품위생 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행사기간 중 식품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여 성공적인 국제행사가 개최되도록 하겠다며 시민들에게 평소처럼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식중독 예방 3대 수칙을 실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영호 기자



유성구, 깨끗하고 안전한 명절 만든다 대전 유성구가 깨끗하고, 안전한 명절을 만들기 나섰다. 구는 오는 21일까지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길이 115km 구간에 대해 도로변 제조작업을 추진한다. 사업구간은 테크노밸리구간(28.78km)과 문지로~전민네거리(8km), 유성대로(6km), 총대입구~한밭대사거리(4km), 둔곡동~봉선동(3.6km), 성북로(3.5km), 웰드컵육교~지족역(2.2km), 충렬사삼거리~다름고개삼거리(2.5km) 등 총 97곳이다. 특히 올해는 도안 신도시, 학하, 덕명 등 새로이 조성된 택지구간을 포함 지난해 보다 작업량을 30% 늘렸으며, 사업을 서둘러 명절 전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무인카메라 설치로 산불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대덕구,계족산봉황정 등 산불감시 취약지역 4개소 설치 완료

대덕구청장 박수범은 산불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계족산 정상과 등산로 입구 및 산불취약지에 산불무인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고 8일 밝혔다. 구는 110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계족산 봉황정 밑에 조망형 카메라를 비롯하여 밭동소류지, 신

고, 밀착형 카메라는 산불취약지, 등산로 입구에 설치돼 무단 입산자 및 산림 연접지에서 소각행위를 단속하는데 사용된다. 구 관계자는 "금년 가을 산불조심기간부터 산불감시카메라를 통해 산불 예방·예찰 강화, 산불 발생 시 조기발견 및 신속한 진화인력 투입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기자

추석맞이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총력

서구,백화점·영화관·재래시장 등 14일부터 실시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백화점, 영화관, 재래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추석 연휴 동안 이동인구가 크게 늘면서 다중이용시설 이용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건축, 전기, 가스, 기계 등 분야별 공무원과 전문가로 이뤄진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각종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적기에 안전조치를 취해 귀성객과 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이용객과 유동불량이 일 시적으로 증가하는 백화점, 대형 판매시설 등의 비상통로 내에서 이뤄지는 무분별한 판매행위, 물건 무단 적치로 피난 시설 기능 저하 등 취약해지기 쉬운 위험요인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한

다. 또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소유(관리, 점유)주는 현지시정,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철저한 점검으로 주민 모두 안전사고 없는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중이용시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누전과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선기자

41회 전국품질분임주 경진대회

市 14개 메달 입상

대전시는 지난 8월 31일부터 4일까지 충남 덕산 리솜리조트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실시한 41회 전국품질분임주 경진대회에서 대전시 대표로 11개 부문 14개 분임주가 출전하여 대통령상 금 6, 대통령상 은 1, 대통령상 동 7개 메달을 각각 입상했다.

대신시는 "이번 대회는 금년이 41회로 전국 시·도에서 선발된 분임주 294개 팀이 출전하여 현장개선, 설비, 보전경영, 6시그마, 서비스·간접사무, 자유형식, 환경·안전품질, 상생협력, 창의개선(연구, 운영, Cop), 제안사례 등 15개 부문으로 나뉘 기업규모별로 분임주당 15분간 자유형식으로 발표하여 평가등급별로 금·

은·동메달을 선정한다. 입상한 대전시 분임주는 14개 팀으로 ▲대통령상 금메달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팔팔 분임주, 해뜰이 분임주, 모항 분임주, 한 국원지력연료㈜장구 분임주, ㈜케이티씨에스 스마일 캠프 분임주 등 6개 팀이고 ▲대통령상 은메달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오일 분임주이며 ▲대통령상 동메달은 세원화성㈜ 소나무 분임주, 한국철도시설공단 앞싸!고고 분임주, 보라매 분임주, Dream Team 분임주,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번개분임주, 한국모보트㈜워 별빛 분임주, 개인 출전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김기철 등 7개 팀이 수상했다. 이번에 입상한 분임주에 대한

이영호 기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 종합평가

유성구 '대통령상' 수상 영예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8일 서울 삼삼월드콤플렉스 평화광장에서 환경부 주관 '제7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날 수상은 환경부에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개최한 '음식물쓰레기 경진대회'를 종합평가한 결과로 유성구는 대통령상을 수상하여 정부포상인 대통령기관표창을 받았다. 평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

평가 지표는 발생량 감량성과, 종량제 개선사례 등 6가지였으며 유성구는 발생 원인별 맞춤형 시책 시행, 무단 투기 근절을 위한 클린지킴이 운영, EM발효액을 이용한 음식물 퇴비 활용 사업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유성구 음식물쓰레기 는 2011년 10월 종량제 전면시행 이후 13%가 감량됐다. 허태정 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구의 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신 주민들의 덕이다"라며 "앞으로도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으며 주민들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했다. 김태선기자

市,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운영

19일 '옛 충남도청~대전역' 구간 차량전면통제

대전시는 원도심 활성화의 일환으로 오는 19일 '걷고 보자! 중앙로 차 없는 거리'를 중앙로(옛 충남도청~대전역)에서 개최한다. 주요행사로 는 ▲1구간(옛 충남도청~중앙로네거리) 문화·축제거리의 거리에서는 사회적경제박람회, 독도는 우리 땅 플래시몹, 무료 체력측정 ▲2구간(중앙로네거리~목척교) 젊음의 거리에서는 어린이로휴게소 내 HACCP 인증업체 또는 인증을 준비하는 업체와의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위생관리 기술공유 등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뒤에 따라 시내버스도 첫 차부터 오후 9시까지 한시적으로 우회 운행하게 된다. 김태선기자

3대 사회악 추방 주간 운영

중구, 가정폭력·성매매 등 예방 캠페인 전개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3대 사회악 추방주간을 맞아 건전한 영입풍토 조성 및 성매매 근절을 위해 가정폭력·성매매·성폭력 등 3대 사회악 추방주간을 운영한다. 8일 으능정이 거리와 중앙로 지하상가 일대에서는 중구아동·여성안전재역연대, 중부경찰서, 중구부하며, 통일을 위한 교류협력과 남북간 통일성 회복을 추진하는 각종 단체 등에 지원되며 대국민 통일감파대 확산을 위한 사업 등에 도드라질 예정이다.

또한 오는 10일까지 대중동, 선 화동 등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비치해 청소년들이 지원기관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아동과 여성들이 행복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가정폭력·성매매·성폭력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로명 주소 홍보 캠페인 추진

서구, 도로명 주소 활용 활성화·새 우편번호 시행 홍보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8일 도마emun시장에서 장종태 서구청장을 비롯해 상인연합회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로명주소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도로명주소 활용 활성화'와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새 우편번호 사용' 홍보를 위해, ▲도로명주소 이해 및 활용방법 등이 담긴 전단 ▲위치 찾

기 맞춤형 안내지도 ▲새 우편번호 시행에 따른 안내문 등을 배부했다. 또한,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리성과 활용방법을 홍보해, 주민들의 도로명주소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서구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활용 활성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도로명주소 생활화할 방침이다. 김태선기자



(주)돈마니, 육류 200kg 기탁 (주)돈마니(대표이사 윤여진)는 8일 대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안기호)에 육류 200kg(등뼈)을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한 물품은 대전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참사랑회를 통해 행복한집 무료급식소와 사랑의집 양로원에 전달된다.

스포츠마케팅으로 추석 명절 특수 기대

청양군, 장관기 게이트볼·족구 등 4건 체육대회로 4500여명 방문

스포츠마케팅의 도시 청양군에서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4건의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가 잇따라 개최된다. 군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홍보를 위해 추석 명절 전에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는 7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2015 충남교육감배 학교클럽 배구대회가 청양문화체육센터 등지에서 이틀간 열리며, 다음날인 12일부터 13일까지 1000여명이 참가하는 제16회 국민생활체육회장기 전국합기도대회가 청양군민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어 15일부터 17일에는 청양공설운동장에서 1300여명이 참가하는 제24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게이트볼대회가



열리며, 18일부터 20일까지는 백세건강공원에서 제9회 고용노동부장관기 전국 직장인족구대회가 열려 15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추석 대목을 앞두고 잇따

른 굵직한 대회 개최로 숙박업, 외식업 등 자영업자에 큰 명절 선물이 될 것"이라며, "지역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스포츠마케팅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양군은 올해 37건의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전지훈련 유치로 150억원 이상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청양=정상범기자



장기흡연자 '입원형 금연캠프'에서 전문치료

순천향대가 국가지정 충남금연지원센터(센터장 박윤형 교수) 주관으로 입원형 금연캠프가 충남지역에서는 최초로 선보였다.

지난 2일 내원하여 건강검진과 흡연 검사를 실시하고 4일 오후부터 7일 오전까지 순천향대학 천안병원에서 입원하여 진행된 5일간의 전문치료형 입원캠프가 충남지역에서 처음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년 이상 장기 흡연한 사람이 금연하려는 성인을 대상으로 대학병원에서 3박 4일 입원하여 완전히 금연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입원하는 장기 흡연자는 순천향대학 병원에서 건강검진, 폐 기능검사, 폐 전산화 단층촬영 등을 통해 현재의 건강상태를 진단받고 이 기간 동안 의사, 간호사, 임상심리사에 의해 집단적으로 전문 금연심리치료와 개별 금연치료를 받는다.

치료과정에서는 ▲금연 약물치료 ▲흡연갑담과 스트레스 대처법 ▲담배의 해로운 바로알기 등 교육과정을 비롯해 ▲금연후 식사관리, 개인별 아산=리광주기자



화역사시리즈Ⅳ 선착순 발매

조공, 실물과 최대한 유사하게 재현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www.komso.com)는 우리나라 주화역사 시리즈 4차(해동통보, 상평통보 당이전)를 오는 15일부터 선착순으로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될 해동통보와 상평통보 당이전은 각각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주화로 이전에 판매했던 주화역사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제 품소재는 순금999, 지름 33mm, 무게 20g으로 하고, 실물보다 다소 확대해 제조하되 실물과 최대한 유사하게 재현했다.

한국조폐공사가 가지고 있는 위·변조 방지기술인 잠상기법을 적용해 보안성과 품격을 높였다. 판매수량은 일련번호를 부여한 제품 종별 100개 선착순 한정수량이다.

판매 가격은 각 114만4천원(부가세포함)으로 15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4시까지 계좌입금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입금후 전화확인(042-870-1122-1124)으로 완료된다. 계좌입금 순번대로 낮은 일련번호 매겨진 주화역사시리즈 제품부터 배부된다.

주화역사시리즈 5차는 고려시대 '해동중보', 조선시대 '상평통보 중형전' 재현 품으로 올해 12월 출시 예정이다.

송병배기자

농협대전공관장-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과 MOU체결



농협대전공관장(장장 박찬혁)과 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이영철)은 지난 3일 전북 무주군 무주읍 소재 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무주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농협대전공관장,

무주농협 조합장, 구원동농협 조합장 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와 조합 관계자 및 공관장 경매사·중도매인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무주군 농협, 무주군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대전공관장이 농산물 판매 시 "농산물 산지연합조직·소비

자 공관장」간 정가·수의매매 제도를 활용한 공동협력사업을 통해 농업인은 지속적인 대량구매처 확보 및 물류비 절감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공관장은 소비자에게 우수한 농산물을 적정 가격에 판매해 공관장 역할을 충실히 이행 및 정가·수의매매 제도로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영철 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는 "농가들과 노력해 고품질의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대전공관장은 우수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찬혁 장장은 "정가·수의매매란 생산자 농민을 우대하기 위한 제도임을 명심하고, 상호협력과 노력이 있어야만 좋은 결과가 이루어 질 수 있다"며 "공관장은 산지와 소비자,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개자로서 형식보다는 실천을 중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송병배기자



K-water 반부패·청렴의지 다짐

K-water 대청수도건설단장 신경식은 8일, 청렴캠페인을 실시했다. 소통을 통해 반부패·청렴의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 이번 캠페인에서 신경식 단장은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메시지가 담긴 리플렛 등을 나누어 주며 언제나 정직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캠페인과 관련해 신경식 단장은 "K-water는 윤리경영이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경쟁력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성공여부는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자율적 노력에 달려있다. 특히 한가위 명절을 앞둔 요즘 전 직원과 반부패·청렴캠페인을 함께 하며 자율적 실천의지를 다짐하는 것은 윤리적 조직문화를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청수도건설단은 지난 4일, 청정리더가 주관하는 청렴교육 및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에 참여한 건설단 전 직원은 K-water가 전사적으로 추진 중인 청렴정책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임직원 행동강령의 준수를 다짐했다.

공사 관계자는 "청정리더는 올해 발족한 K-water 청렴·윤리관리체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청렴활동을 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청수도건설단은 청렴을 최우선의 행동기준으로 삼고 국민에게 물처럼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산=리광주기자

중소기업 특허 경쟁력 강화 절실

제2차 전기·기기산업위원회 열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8일 오후 4시, 서울 중기중앙회 중회의실에서 '제2차 전기·기기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2차 전기·기기산업위원회' 회

의에서는 갈수록 증가하는 글로벌 특허분쟁 증가에 따라 중소기업의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경영 활성화를 위한 세계 개편, △협동조합 중심의 특허분쟁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정부가 민관합동으로 설립한 특허전문관리회사인 인텔렉추얼 디스커버

리 관계자도 참석하여, 중소기업 특허분쟁 대응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한편 전기·기기산업위원회는 전기·기기산업에 속한 중소기업의 전문성 강화와 주요현안의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5월에 출범했으며, 전기·기기관련 협동조합 이사장 13명과 업계 전문가 2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송병배기자

대전투데이 창간 9주년을 축하합니다.

대전투데이 후원회일동

대전국토청,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의식 제고 위해 실시
교통정보센터 체험·교통안전 교육



대전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일환)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2015년도 어린이 교통정보센터 체험 및 교통안전 교육'을 9월 3일, 4일, 8일 3일간 실시하였다 밝혔다. 이번 안전교육은 대전시 대덕구 범동에 위치한 피노키오 유치원 원생 150여명을 대상으로 체험 위주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교통약자이자 미래의 운전자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등하교 요령,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등 실제 생활에 꼭 필요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김태선기자

호서대, 수시모집 대비 모의면접 실시

고3수험생 초청 모의면접...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규)는 지난 5일, 아산캠퍼스에서 실시한 고3수험생 초청 모의면접에서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면접은 2016학년도 호서대학교 수시모집에서 면접을 반영하는 전형에 지원하려는 수험생들에게 면접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련했다. 지난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개별적으로 신청한 12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제 면접과 동일하게 기본사고능력, 전공적성, 인성 등 3개 영역에 대한 면접평가를 실시하며, 면접 교수가 각 수험생 답변의 우수함 점, 미비한 점 등을 논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아산=리량주기자

학교법인 단국대학 천안사업소

천안시 보훈단체 협의회 업무협약



학교법인 단국대학 천안사업소(단국대병원 정재식장/소장 유수환)는 최근 국가유공자 등 보훈회회원의 장애절차 지원 및 편의 제공을 위해 천안시 보훈단체 협의회(회장 노규환)와 업무협약을 체결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 도입해도 신규채용 낮아

향후 5년간 12개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 신규고용자 356명에 그쳐

한발대, 제3기 최고

경영자과정 입학식 개최

정부가 지방공기업에 비롯한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국립대병원의 경우 임금피크제를 도입해도 사실상 실질적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의 경우 고된 노동조건으로 이직률이 높고, 근속년수가 짧기 때문이다.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에 일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기관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정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지 의문이다.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13개 국립대병원에 교육부에 제출한 '2016년도 임금피크제 관련 별도정원 요청서'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다. 13개 국립대병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지 않았을 경우 2016년 총 정원 196명에서 196명만 신규채용 26,090명의 0.75%에 불과했다. 이는 국립대병원의 평균 근

속년수가 짧게는 7년, 길게는 15.1년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 퇴직예정자의 경우 서울대학교병원 58명으로 정원 대비 1%에 불과했고, 부산대치과 병원은 한 명도 없었다. 또한 국립대병원 정년연장을 살펴본 결과 직급별 차이는 있었지만 13곳 중 10곳은 이미 정년이 59~60세였다. 정년연장 효과가 적다는 것이다. 정년이 이미 60세인 국립대병원을 제외하고, 정년연장이 있는 국립대병원 8곳이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할 경우, 2016년 퇴직이 예정되었다가 정년이 연장되는 총 인원은 100명에 불과했다. 이는 국립대병원 전체 정원의 0.38%에 불과한 수치다. 문제는 공공기관의 경우 총 정원이 고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국립대병원의 총정원을 늘려주지 않으면 오히려 100명의 정년퇴직 연장자만큼 신규채용 규모는 100명이 줄어드는

임금피크제를 2016년부터 도입한다는 전제로 2020년까지 12개 국립대병원의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280명 규모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원 대비 1.07%에 불과한 수치다.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의 수가 적은 만큼 신규채용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12개 국립대병원이 정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제출한 '별도정원 요청서'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356명의 추가 신규 채용별도 정원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별로 보면 연도별 신규채용 계획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신규채용 규모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채용 규모와 비교해도 임금피크제를 통한 효과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은 이직률이 높아 신규채용 규모 또한 크다. 12개 국립대병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국립대병원 신규채용 1,603명, 무기계약직 217

명, 비정규직 2,280명 등 총 4,100명을 신규로 채용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평균 71.2명의 신규채용은 이 규모의 1.7%에 불과한 수치다. 만약 정규직 채용만 대상으로 하더라도 4.4% 증가에 그치는 것이다. 국립대병원의 2014년 정규직 신규채용은 1,603명이지만 실제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실제 정규직 채용과 비교하면 그 비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 정진후 의원은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정년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처럼 선전하지만, 국립대병원의 경우 고된 노동조건 등으로 이직률이 높아 근속년수가 짧다는 점에서 실질적 고용증대 효과는 적다고 할 수 있다면서 "무조건 임금피크제가 선인 것처럼 모든 공공기관에 강제할 것이 아니라 청년고용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dajeontoday.com

공주시, 전국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공산성 밭기 대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념해 공산성 일원서 진행

아름다운 금강을 배경으로 펼쳐진 공산성 일원에서 오는 12일 전국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와 함께 다채로운 행사가 시민과 관광객을 맞는다. 공주시시장 오시덕은 공산성과 무병왕릉을 포함한 송산리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해 백제문화의 세계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오는 12일 전국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와 공산성 밭기 대회를 진행한다

이번 그림그리기 대회는 오는 12일 오전 11시부터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 일원에서 유치부, 초등부, 고학년부로 나뉘어 실시되며, 작품소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을 소재로 한 작품이어야 한다. 이번 대회의 우수작에게는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우수기 도교상 등 5종의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며 작품은 오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열리는 제61회 백제문화제

기간 중 웅진백제역사관에 전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그림그리기 대회에 앞서 진행되는 공산성 밭기 대회에는 오전 9시 공산성 쌍수정에 집결, 간단한 스트레칭을 실시한 후 쌍수정을 출발해 임류각을 거쳐 다시 쌍수정으로 돌아오는 1km 코스로 진행된다. 공주시 문화재과 세계유산TF팀 소세은 팀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해 열리는 이번 그림그리기 대회와 공산성 밭기 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아산시, 추석 전 산업재해예방 안전점검 및 캠페인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제234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지난 4일 재난취약시설·수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재난예방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점검은 산재예방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산재예방협력체제 강화 및 상호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및 아산시, 천안시,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사 관계자 등 25명이 참여한 합동 점검으로 실시됐다.

대전상의 일학습병행제, (주)빙그레 농산공장 최종 선정

신직업자격분야 냉동공조설비 훈련프로그램 운영... 현장실습·이론 병행 전문기술인력 양성 기대

대전상공회의소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주)빙그레 농산공장이 선정됐다. 8일 대전상공회의소 일학습병행제 확산팀에 따르면 현장실사와 2차에 걸친 선정위원회를 통해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할 기업으로 아이스크림 및 바나나맛 우유 등을 주로 생산하는 (주)빙그레 농산공장이 최종 선정됐다. (주)빙그레 농산공장은 기업규모,

신용등급, 상시근로자수 등 계량적 지표를 비롯해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의지, 기업현장 교사 등 인적인 요소도 고려, 학습근로자에 대한 근로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아 선정됐다. (주)빙그레 농산공장은 앞으로 지역 출신의 일학습병행제 근로자 모임을 통해 냉동공조설비 과정에 대한 신직업자격분야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며, 1년 동안 현장실습과 이론 교육을 통해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박찬용 (주)빙그레 농산공장 총무 팀장은 "평소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앞으로 일학습병행제 지원제도를 통해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인재들을 육성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건양대 평생교육대학 논산시민 축제학교 개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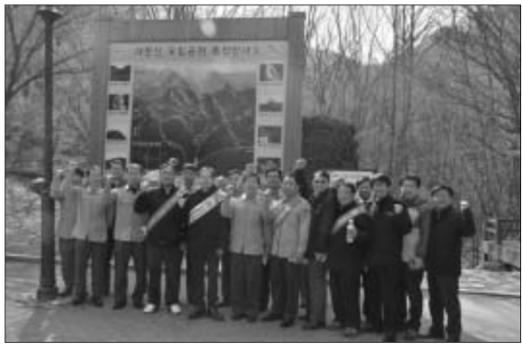
건양대학교(총장 김희수) 평생교육대학원장 윤봉환은 지난 1일 논산시가 지원하는 2015년 특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의 일환인 '논산시민 축제학교(지역축제 매니저 양성과정)' 입학식을 개최했다. 건양대 산학협력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 행사는 논산시 평생교육과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41명의 학습자가 참여하게 되는 '논산시민 축제학교(지역축제 매니저 양성과정)'는 국내·외 축제동향 및 사례를 통해 축제의 기획과 원리를 익히고 시민이 만드는 바람직한 논산축제를 기획하게 된다. 축제관련 전문교수(주강사: 건양대학교 호텔관광학부 지진호교수) 및 현장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하며 이론 및 축제현장교육(실습) 등 실무교육 중심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9월 1일, 첫 교육을 시작으로 11월 11일까지 총 15

회 68시간의 수업을 진행하며, 이 중 축제현장 견학(교육) 및 실습과 지역축제 자문 실습을 하는 등 총 6회 41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학습자들은 본 사업을 통해 지역축제의 이해 및 국내·외 축제 동향, 사례를 통해 본 축제의 성공과 실패, 축제 기획의 원리, 축제 운영의 실제 등을 배우게 되며 이를 통해 지역축제 분석, 지역축제 프로그램 기획, 타 시군 운영사례 현장 견학, 평생학습등이더러 구성 및 활동, 축제 매니저로서의 지역축제 자문 및 인턴십에 참여하게 된다. 건양대학교 평생교육대학 윤봉환 원장은 "전문지식을 배워나가며 참여 및 자문을 통해 논산시 축제의 시민입장에서 바라 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명중 축제로의 방향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예학의 고장으로 다량 축제를, 체험거리가 풍부한 논산시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대전시티즌, 제주 상대로 홈 승리 노려

대전시티즌이 홈에서 기본 좋은 승리를 거두기 위해 나선다. 대전은 9월 9일 오후 7시 30분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제주 يونايتد를 상대로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9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대전은 지난 여름 대대적인 팀 개편으로 전력 보강을 꾀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19일 광주와의 경기에서 2-1로 승리하는 기쁨을 맛봤다. 이후 서울, 인천과의 경기에서 대등한 경기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기세를 잊지 못하며 아쉬움을 삼켰지만 경기 내용은 확실치 않았다. 전반기의 약한 모습은 시라졌다. 서서히 팀이 끈끈해졌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뭉치고 있다. 대전은 이러한 분위기를 제주전 승리의 기운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상황이 다르다. 후반기 들어 대전의 공격은 날카로워졌다. 대전은 7월 1일 성남전을 시작으로 8월 29일 인천전까지 10경기에서 12골을 넣었다. 경기당 1.2골의 높은 득점력이다. ■집중력 있는 수비를 구축한다. 승리를 위한 첫 번째 과제는 탄탄한 수비 구축이다. 올 시즌 대전은 수비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득점은 꾸준히 하고 있지만 한순간 수비가 무너지면서 실점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이 승부에 악영향을 끼쳤다. 공격 못지않게 철저한 수비가 필요하다. 전북을 상대로 3골을 넣었지만 4실점하면서 패한 쓰러진 기억도 있었다. 전반에서 골을 터뜨리며 분방하여도, 수비진이 그만큼 버티지 못하면 승리를 얻는 것도 그만큼 어려워진다. 다행스러운 점은 경기를 치를수록 수비라인이 안정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종료 후술이 올릴 때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경기에 임해야 한다. 김정환기자



논산소방서, 가을철 산악긴급구조 종합대책 수립 논산소방서(서장 류봉희)는 매년 가을철 단풍철에 등산객 증가로 인한 산악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가을철 산악긴급구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전대학교, 유해화학물질 예방교육 실시 대전소년원(원장김현균)은 9월 8일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위험청소년을 찾아가는 유해화학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술·담배·환각물질·마약류 등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청소년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공주소방서, '15년 3분기 의무소방원 현장능력평가 이달 9일 수요일 오후 백제체육관(공주시 웅진동 소재) 주차장에서 2015년 3분기 의무소방원 현장능력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장능력평가는 의무소방대원의 각종재난사고 발생 시 현장대응능력 향상 및 전문성 강화위한 평가이다.



금산소방서, '가을철 등산목 안전지킴이' 운영 가을철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악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해 지난 9월 5일부터 10월말까지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배치운영중에 있다.



아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실시 아산소방서(서장 이종하)는 8일, 아산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제1회 '32보병사단 입영문화제 개최' 대전·충남지방방무청(청장 이성수)은 8일 제32보병사단 청주관 강당에서 "2015년도 제1회 32보병사단 입영문화제"를 개최했다.

당진시장배 전국바다낚시대회 '재검토 해야'

5천 여 만원 투입됐으나... 효과는 미미, 혈세낭비 논란

당진시가 지난 4일 시 보조금 2000만원과 기업체 후원금 1000만원, 개인 참가비 1800여만원 등 총 5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장포항 앞바다에서 개최한 제7회 당진시장배 전국바다낚시대회가 참가자 저조와 홍보 부족 등으로 혈세만 낭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전국바다낚시대회는 미리 참가를 신청하고 당일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했으나 지난해보다 약 30% 감소한 225척의 강태공들이 참가해 준비했던 25척 중 17척의 배를 이용해 낚시대회를 열었다. 매년 개최되는 당진시장배 전국바다낚시대회는 해양 관광산업 증진과 레저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가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전국바다낚시대회가 장포항 어촌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당초 개최 목적인 해양 관광산업 증진, 시 홍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도 전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투입된 예산에 비해 얻은 것이 없는 대회로 전락했고 등수에 따른 상금을 걸어 사형성을 조장하는 한편, 예산만 낭비하는 퍼주기식 대회라는 지적이 일면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다른 행사처럼 관광객 동원도 불가능해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인근도시 태안군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해 5월, 7월, 10월 등 3차례의 바다낚시대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당진보다 바다 어건이 좋고 어족자원도 풍부해 손맛을 보여주는 강태공들의 관

심이 태안으로 쏠린 것도 이번 대회 참가자 저조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혈세를 투입해 해마다 추진하는 전국바다낚시대회를 당진시민을 위한 대회로 변경해 지역 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와서 고기도 잡고 머리도 식히는 힐링과 재충전의 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예산사용의 목적에도 맞고 지역경제에도 훨씬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어 시의 대책 마련이 주목을 받게 됐다.

당진=최근수기자

대전 시내버스 임단협 타결... 시급 3.65% 인상 합의

2008년 이후 8년째 무분규 타결



대전시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광철)과 대전지역버스노동조합위원장 최정규는 지난 3월 20일 1차 협상을 시작으로 15차인 7일까지 마라톤협상을 통하여 '2015년도 시내버스 임금 및 단체협상'을 타결했다.

노사는 각 호봉별 시급 대비 3.65%인상에 합의함으로써 8년째 무분규 타결을 이루어냈다.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은 임금인상 폭이었으며 5개월 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장기간 난항을 겪었다.

이영호기자



세종소방본부, 불조심 어린이마당 대회

7개 초등학교 19학급 참가... 최우수상 학급 전국 대회 출전

세종소방본부(본부장 권대윤)가 9일 세종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제3회 세종 불조심 어린이마당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자녀들은 어린이들이 화재안전에 관한 기초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안전처와 화재보험협회가 개최하는 대회이다.

필기시험 형태로 평가를 받게 된다. 이번 세종 불조심 어린이마당에는 세종지역 내 7개 초등학교 5학년 19학급의 학생 433명이 참가하며, 9일 각 학급에서 40분간 평가에 응하게 된다. 평균점수가 높은 학급 순으로 총 4개 학급의 학생과 지도교사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최우수상 수상 학급에는 23일 전국 불조심 어린이마당(본선) 출전자격이 주어진다. 세종=김정환기자

청양소방서, 가을철 단풍시기 등산객 증가 따른 선제적 대응

가을철 산악긴급구조 대책 추진



청양소방서(서장 이광성)는 오는 10월말까지 철갑산 등산사고 다발지역에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배치하고 안전시설을 보강·정비하는 등 '가을철 산악긴급구조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청양=정성범기자

이번 산악구조대책은 가을철 단풍시기 등산객 증가로 인한 산악사고에 대비해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안전한 산행문화를 조성함과 동시에 인명피해 등을 최소화하고자 실시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등산목 안전지킴이 및 응급의료소 운영 ▲등산로 안전시설 및 표지판 정비·보강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 ▲사고다발지역 구조·구급함 설치 ▲등산로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사전에방화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훈환 현장대응단장은 "산악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예방활동이 최선을 다하겠다"며, "등산객들도 자신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산행을 절대 금할 것을 당부했다."

KAIST, 하계 다보스포럼에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초청

중국 다롄시 국제컨퍼런스센터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하계대회



KAIST(총장 강성모)가 오는 9~11일 중국 다롄시 국제컨퍼런스센터(IC)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하계대회(인명 하계 다보스포럼)에 국내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초청받았다.

양한 세션에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KAIST는 이번 포럼에서 전 세계 리더들에게 최신 연구동향을 소개하고 함께 토론하는 자리인 '아이디어스랩(IdeasLab)'을 국내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4회째 운영한다.

'바이오소재 vs 나노소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션은 '차세대 산업혁명'을 이끌 소재는 무엇이 될 것인가'를 두고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회의는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린 루(Lynn Loo) 교수가 사회자로 나서 '토론 랩(Debate Lab)'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되며 청중들은 토론 전후에 걸쳐 이슈에 대한 투표도 진행한다.

상업 KAIST 생명화학공학과 특훈교수와 이혜신 KAIST 화학과 교수도 참가해 '생물을 해킹해 플라스틱을 만든다'와 '의료용 생체적합성 물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나노 소재' 토론자로 정희태 KAIST 생명화학공학과 석좌교수와 조은애 KAIST 신소재공학과 교수가 나와 '자기조립 나노물질'과 '수소연료를 위한 나노 리파이너리'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발표에 이어 세션 참가자들과 발표자들은 '바이오 물질과 나노물질' 중 어느 것이 차세대 산업혁명을 이끌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강성모 KAIST 총장은 글로벌대학리더스포럼(GULF)이 주관하는 '산학협력 세션의 토론 리더로 참여해 구오핑(Guo Ping) 중국 회장이 부회장, 장 쉘로 윈스키(Jean-Luc Lowinski) 사노피 차이냐(Sanofi China) 수석 부회장과 함께 산학협력에 관해 토론한다. 이정복기자

충남도, 체납차 1,187대 적발, 번호판 352대 영치

시·군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 차량번호판 영치 활동 실시

충남도는 8일 시·군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 모두 1,187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회 미만 체납 차량 835대(체납액 2억 3백만 원)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문을 부착했다. 한편 7월 말 현재 도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412억 원으로, 지난해 말 377억 원보다 35억 원 늘었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또 전체 지방세 체납액 1,730억 원의 23%를 차지하고 있어 징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에는 도청청정, 도로공사 등과 함께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체납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오는 10월부터 지방세 체납액 일체 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해 체납액을 줄이고,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이지용기자



충남 소방본부 '신속·안전한 구급서비스' 제공 다짐 지난 7일부터 이틀간 홍성군 용봉산 자연휴양림에서 도내 구급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속하고 안전한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급업무 담당자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조직개편에 따른 구급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고품질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직장인 가장 바라는 복지 1위 '보너스'

<잡코리아> 직장인 50.4% 현재 일하는 기업의 '복지제도' 대해 불만족

직장인 2명중 1명(50.4%)은 현재 일하는 기업의 '복지제도'에 대해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한다'고 답한 직장인은 11.7%로 10명중 1명에 그쳤다. 잡코리아가 직장인(1484명)과 취업준비생(1319명)을 대상으로 <내가 바라는 복지제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드러난 사실이다. 직장인들은 현재 직장의 직원 복지제도 중 가장 많이 운영되는 제도로 ▲연월차 지급(45.4%) ▲명절 상여금 지급(39.8%) ▲식사비 제공(32.8%) ▲경조사 비류가 지원(29.1%) ▲여름휴가비 지원

28.3% 순으로 많다고 답했다. 반면 ▲사내 복카페를 구비(2.6%)하거나 ▲직원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심리상담 등을 지원(3.1%)하거나 ▲직원 어린이집을 운영(3.4%)하는 직장인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직장인들이 뽑은 가장 유명무실한 복지제도로 '연월차 지급'(11.4%)이 위로 드러났다. 비쁜 업무로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남성직원의 자녀출산 휴가'

(11.3%)와 남성 직원의 장기 육아휴직(10.4%)도 유명무실한 복지제도로 꼽혔다. 직원 복지제도에 대한 불만은 직장인들의 만족도를 떨어뜨려 이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 '사내복지제도나 근무환경에 대한 불만 때문에 퇴사'이직환 경험이 있는가' 조사한 결과 과반수이상인 56.1%의 직장인들이 '있다'고 답했다. 또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사내 복지제도나 근무환경에 대한 동경'으로 입사지원한 경험이 있는가 조사한 결과, 57.1%가 '있다'고 답했다.

직장인과 취업준비생들은 직장에서 어떤 직원복지제도를 선호할까? '가장 누리고 싶은 직원 복지제도는 무엇인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기보너스'가 응답률 36.2%로 1위로 조사됐고 이어 식사제공·조식·중식·석식이 35.3%로 2위로 집계됐다. 다음은 ▲연월차 지급 21.8% ▲인센티브 도입 15.2% ▲자기계발비 지원 15.1% ▲본인 교육비/학비 지원 13.0% ▲여성직원 장기 육아휴직(11.8%) ▲저금리 직원대출(10.4%) 순으로 높았다. 이정복기자



연남초, 자연 배우는 '꼬마 예술인 캠프'

세종시 연남초등학교(교장 박용현, 이하 연남초)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꼬마 예술인 캠프'가 학생들로부터 인기다. 연남초는 7일 지역에 위치한 도자기 체험장을 활용해 재학생 대상 자연 속에서 배우는 오감만족체험활동을 펼쳤다. 이번 캠프는 학생들이 기초적인 도예 체험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의 우수성을

배우고 더 나아가 미적 감수성도 함양하고자 마련됐다. 아이들은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의 일부인 흙을 만지며 실생활에 유용한 접시나 컵 등을 빚고 가마에 불로 구워내 소중한 결과물을 얻음으로써 책임감과 정인의 숭고한 정신을 배우 나가고 있다. 세종=이정복기자



논산중, 제2회 학교장배 학교스포츠클럽 시작

논산중학교(교장 정재근)는 7일 점심시간부터 운동장 및 강당에서 전교생이 참여하는 제2회 학교장배 학교스포츠클럽 'Smoke Free 설송리그'를 시작한다. 2회째 치르게 된 이 대회는 학생중심의 학교문화를 만들고자 학생회의 기획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1회 대회 축구리그전으로 시작하여 2회 대회는 축구, 농구, 배드민턴 세 종목으로 확대 운영되며, 모든 학생이 빠짐없이 1종

목에 출전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리그를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문화공간을 스스로 마련하고 화합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학교폭력 및 흡연 예방 지원·협력 프로그램으로 학습이완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학교폭력 및 흡연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논산=한대수기자



태안교육지원청, 장애학생체육대회 금 13개 획득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한기) 예산군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초·중,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체육대회에서 육상 100m, 200m, 400m와 높이뛰기, 멀리뛰기,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창던지기의 8개 종목에 출전하여,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4개, 총 2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태안교육지원청은 장애학생의 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학생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교육청, 8일부터9일까지 2015년 학교재난 대응 역량강화 교육

'안전한 학교 만들기' 재난대응 강화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8일부터 9일 양일간 충남교육연수원에서 각급 학교 및 기관 재난업무 담당자 900여명을 대상으로 '2015년 학교재난 대응 역량강화 교육'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각급 학교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응급대처 능력을 배양해 인명 및 교육시설 피해를 최소화 하고 안전 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교육시설재난공제회와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공주소방서 강양규

예방안전팀장과 광운대학교 함은구 교수 등을 초빙해 '학교 화재 예방 및 대응방법'과 '자연재난 피해 예방 및 대응방법' 등에 대해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례중심 교육을 실시해 참석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도교육청 우진식 안전총괄과장은 "학교재난 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각종 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와 대응능력을 한층 향상시키고 안전의식을 고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포=이지용기자

당진교육지원청, 등·하굣길 교통안전캠페인

선진교통문화 조기 정착 위해... 당진시 녹색어머니회연합회 활동 펼쳐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심재진)과 녹색어머니회연합회(회장 오미숙)는 8일 오전 탑동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안전한 등·하굣길 선진교통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등·하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심재진 교육장을 비롯해 인성체육건강과장, We센터 직원들이 참석했고, 당진시 녹색어머니회연합회 임원단과 탑동초 녹색어머니회 그리고 탑동초 교직원 등 60여명이 참여했다. 당진=최근수기자

당진교육지원청, 등·하굣길 교통안전캠페인

캠페인은 '안전한 교통질서 행복한 학교생활' 등의 글귀가 새겨진 어깨띠와 팻말을 들고 안전한 횡단보도 건너기, 스쿨존 내 교통법규 지키기와 학교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발견했을 경우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기 등을 홍보하는 활동이 펼쳐졌다. 심재진 교육장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꾸준한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진=최근수기자

배방고, 충남 장애학생 체육대회 5개 메달 획득

3명의 학생 출전... 5개의 메달 획득하는 쾌거 이뤄

배방고등학교(교장 우길동)는 지난 4일, 예산군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2015 충청남도 장애학생 체육대회에 3명의 학생이 출전하여 5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2015 충청남도장애학생체육대회에 배방고등학교에서는 육상트랙과 육상필드 종목에 2학년 송00 학생과 1학년 학생 남녀 각 1명씩 총 3명이 출전하였다. 송00

학생은 여자 고등부 800m 경기에 출전하여 은메달을 획득하고 여자 400m 경기에서는 동메달을 획득하였다. 또한 1학년 임00 학생은 육상필드 높이뛰기 여자 고등부에서 90cm를 넘으며 금메달을 획득하였고, 1학년 임00 학생은 남자 고등부 창던지기에서 금메달과 남자 고등부 포환던지기에서 은메달을 획득함으로써, 배방고등학교 학생에서는 3명의 학생이 대회에 출전하여 금메달 2, 은메달 2, 동메달 1 총 5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번 대회를 준비한 지도교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일반 학생들이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올바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산=리량주기자

부여교육지원청, 육상종목 금11개·은10개·동4개 등 쾌거 이뤄

충남장애학생 체육대회서 금빛 나래 펼쳐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용우)은 지난 4일에 예산군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2015 충청남도장애학생체육대회' 육상종목에 장애인, 지도교사 등 선수단 80명이 참가해 금11개, 은10개, 동4개 등 총 25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대회에서 부여교육지원청은 다관왕 선수를 4명이나 배출했다. 부여고이주안(청각장애) 학생은 100m와 200m에서 1위 하였고 한국식품마이스터고 이승주(지적장애) 학생은 높이뛰기

와 1500m에서 1위, 송간초 김범진(특수교육) 학생은 멀리뛰기와 높이뛰기에서 1위, 석양초 윤수연(특수교육) 학생은 높이뛰기와 멀리뛰기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또한 석양초 김정일(지적장애) 학생은 멀리뛰기에서 1위를 임천중 정지수(청각장애) 학생은 높이뛰기에서 1위를 하였고 임천중 정지희(특수교육) 학생은 높이뛰기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밖에 많은 부여 장애학생선수들이 다양한 종목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했다.

하반기 Pride-up 학부모대학 수강생 대모집

공주교육지원청, 관내 초·중·고 교육 신청 학부모 80명 대상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조병택)은 오는 10월 5일, 관내 초·중·고 교육 신청 학부모 80명을 대상으로 2015 하반기 'Pride-up 학부모대학' 개강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Pride-up 학부모대학은 학부모의 자녀교육역량강화로 자녀와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교육수요자로서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교육과정으로 10월 5일부터 10월 29일까지 매주 월, 목요일 8회기 총 16차시가 운영된다. 학부모의 바른 역할 정립과 청의·인성, 독서치료, 진로, 역사지도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2015 하반기 Pride-up 학부모

대학'은 행복한 부모, 행복한 자녀가 되는 법(서혜숙 임파학교 대표, 국제감각있는 자녀교육과 부모 내공 키우기)이남수 솔빛임파, 학부모, 책과 통하다 I III이 임숙 한국독서치료학회 이사, 생각의 틀을 깨라 (박종하 박종하창의력연구소 소장), 재미있는 공필이야기(송용진 송내관) 재미있는 사교육현장 대표, 부모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진로지도 법(고봉익 TMD교육그룹 대표)을 내용으로 구성되어 해당분야 저명한 강사들이 초빙되어 교육이 진행 될 예정이다. 공주=정삼범기자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 협동조합 임직원 대상

협동조합 임직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박호철)는 8일 오전 10시30분 대전 서구 소재 킨덤브스드르홀(3층)에서 협동조합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협동조합 임직원의 역량을 강화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충청남도과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가 공동으로 추진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최근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대한 설명과 중소기업의 판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다. 송병배기자



금산교육지원청, 2015 하반기 학교장 회의 가져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손중대)은 8일 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하반기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치는 행복한 학교교육' 실현을 위한 2015 유·초·중·고 학교장 회의를 개최했다.



대전학생교육문화원, '꽃살문' 원화 전시회 운영 9월10일~9월16일까지 6일간대전학생교육문화원 1층 로비에서 '꽃살문' 원화12점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도심속 아이들에게 오래된 집이나 고층에서 볼 수 있는 '꽃살문'을 통하여 자연이 주는 선물인 사계절을 한 자리에서 느끼고 볼 수 있음은 물론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동 정 •••

홍주성역사관전시실 재개관식



김석환 홍성군수= 9일 오후 4시 홍주성역사관에서 실시하는 홍주성역사관 상설전시실 재개관식 참석.

2015년 물관리 현장설명회



황선봉 예산군수= 9일 오전 10시 신안면사무소에 열리는 제33회 한마음이

동진분봉사의 날 참석, 오전 10시30분 조양웨딩홀 2층에서 열리는 2015년 물관리 현장 설명회 참석, 오전 11시 제1회의실에서 열리는 3/4분기 지역총화협의회 참석, 오후 3시 군수실에서 열리는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제안서 용역 보고회 참석.

2016년 예산편성 온라인 설문조사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016년도 예산편성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과 도민 참여가 지난해 207명 보다 4.6배가 많은 951명이 참여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충남교육청이 2016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우선투자가 요구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부문별 투자우선 순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도민의 생각을 조사한 것이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직업별 연령별 고른 분포도를 나타냈고,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학생들도 설문에 참여해 학생이 전체 참여자의 24.1%(229명)로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 비전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도교육청에서 우선투자가 요청되는 사업으로는 학교시설 개선 23.9%, 교수학습지원 16.4%, 스포츠활동 지원 11.4%, 학교운영비 증액 11.3%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시설 개선분야는 학교 외부환경 개선이 아닌 교실 냉난방 시설 24.9%, 교실바닥 및 창문개선 21.1%로 나타나 학생들이 활동하는 교실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교수학습 지원분야는 기초 학력 책임지도 확대 37.1%, 방과후 캠프운영에 관심이 많았다.

스포츠 활동 지원분야는 프로그램 개발, 시설개선, 활동비 지원 등을 꼽아 학생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유의미한 자료로 분석되어 학생과 도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수렴해 2016년도 예산편성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내포=이지용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비효율적 행정 조직체계 대대적 개편

세종시교육청, 융합교육·학생안전 역점... 업무 중 78건 통합·폐지·축소 개선

세종시교육청이 비효율적인 행정 조직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 융합교육과 학생안전 강화를 위한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최고진 세종교육감은 8일 오전 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교육의 안정 속에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세종시교육청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최 교육감은 '학교 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 안착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대적 조직 개편을 일선 교육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큰 틀을 유지하기 위해 기능을 개편하는 방향으로 인정 속에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설명했다.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생활교육과 연계교육 취지로 기존 총무과

에서 담당했던 학생 안전업무를 인성교육과로 옮겨 명칭을 인성안전교육과로 변경하기로 했다.

주요 개편안은 본청 내 학교설립과 학교시설관리단을 통합하고 재배치해 현재 2국 2관 1담당관 8과 49담당을 1단 5담당을 축소한 2국 2관 1담당관 8과 44담당으로 재편했다.

시교육청은 행정업무 합리화를

위해 교원, 행정실장, 본청 교육전문직 및 행정직 등 19명으로 구성된 사업조정 TF팀을 운영해 교육청 업무 중 78건을 통합·폐지·축소 개설했다.

일부 개선안에는 유치원 차량은(유아교육담당), 특수교육지원차량(특수교육담당) 통학차량 정수배정은(총무담당) 초·중·고 통학차량은 개교지원담당에서 각각 추진하던 것을 개교지원담당에서 통합 관리토록 했다.

인원증원은 세종교육 거버넌스의 안정적 추진과 교수·학습 중심의 학교 혁신을 위해 정책기획관실과 학교혁신과의 인력을 소폭 늘렸다.

직속기관인 세종교육연구원도 교육과정 연구지원 기능 강화와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 연수 수요 확대에 따른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세종시교육청 조직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10월 중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세종=이정복기자

세계태양에너지엑스포 홍보관 운영

도, 5개 중소벤처업체 참여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이병호)가 도내 태양광 분야 유망 창업·중소기업 5곳과 함께 9일부터 서울간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되는 '2015 세계태양에너지 엑스포(International Solar Energy Expo & Conference)'에 참가한다.

세계태양에너지엑스포는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해 시·도, 학계, 협회 등 29개 기관·단체가 후원하며, 태양광 전시장 구성, 관련 세미나 및 포럼, 정책설명회, 수출 및 구매 상담회 등이 동시에 진행된다.

이번 엑스포에서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홍보관을 운영하며, 혁신센터가 추천한 5곳의 태양광 분야 중소·벤처기업들이 함께 참여해 대표제품을 전시·홍보한다.

도내 참가 업체는 ㈜솔레이텍, ㈜티앤씨코리아, ㈜한국농림시스템, ㈜한백시스템, 그리고 ㈜이큐브랩 등으로, 이들 업체는 각각 군용 태양광 충전기 및 소형 모듈, 태양광 빛물식수 저장시스템, 태양광 목책기 및

조류퇴치기, 태양광 교통안전시스템, 태양광양축 쓰레기봉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번 엑스포에서 태양광 응용제품에 대한 아이디어 및 디자인 공모를 통해 창업부터 사업화 및 판로지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소개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태양광 유관 320개 업체, 2만 8000명이 이상이 관람하며, 약 27개국 2000명 이상의 바이어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엑스포를 계기로 앞으로 국내의 기업들의 판로 확보를 위한 상담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번 엑스포 참여를 비롯해 서산의 태양광 벤처단지 조성 지원, 죽도의 신재생에너지 자립섬 실증사업 추진 등을 핵심 과제로 수행해 충남을 태양광과 신재생에너지 사업화의 허브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국제규모의 태양에너지 행사 참여를 계기로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충남도를 태양광 사업화의 거점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이지용기자



세종시 올해 첫 벼 베기 실시

이춘희 시장, 연동면 송용리 벼 수확농가 방문

이춘희 세종시장이 8일 연동면 송용리 벼 수확 현장을 방문하여 올해 첫 벼 베기 행사를 가졌다.

이 시장은 지난 5월 15일 이곳을 방문해 이앙기를 직접 운전하며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모내기를 실시한 바 있다.

이날 이 시장은 지난 여름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결실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이번에 벼를 베는 눈에 꽃을 싣고 농촌문화와 우리농산물을 소

재로 한 제1회 세종농두렁 꽃마당 잔치를 개최할 장소이기도 하다.

오는 10월 3일부터 4일까지 연동면 송용리 967번지에서 2일간 개최될 세종 농두렁 꽃마당잔치는 가을철 농촌문화를 즐길 수 있는 메뚜기잡기, 떡메치기, 가마솥 비빔밥 만들기, 어린이 사생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날 수확한 벼는 추석 햅쌀 출하를 위한 조생종 '운광벼'이며, 축제에 참가한 방문객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세종=김정환기자

추석명절 물가안정대책 추진

홍성군, 불공정 상거래행위 집중지도점검 등 실시

홍성군은 민족 교유의 전통 명절 추석을 앞두고 서민경제 부담 감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물가안정 종합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올 추석은 시기가 빠르고 큰 태풍피해 없이 일조량이 높아 과일, 채소 등의 작황이 좋아 대형마트보다 재래시장의 가격경쟁면에서 선점할 수 있다고 판단, '추석명절 대비 물가안정대책 집중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물가안정관리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25일까지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불공정 상거래행위(사재기, 끼워팔기, 원산지 허위표시, 가격담합인상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점검과 추석 성수품에 대한 수급상황 집중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추석명절 성수품 20개와 개인서비스 요금 10개 등 총 30개 품목에 대한 가격 동향을 매

일 점검해 신속 정확한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해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유관기관 및 단체와 공조체계를 구축해 성수품 공급대책을 강구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가격안정 자율참여를 유도해 할인행사를 일차별 및 시간별로 실시해 서민생활 안정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소비자 고발 및 불공정 상거래행위 신고·접수 처리와 매매시 및 부당인상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한 거래실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김승환 경제과장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물가 인상이 예상되는 주요품목에 대한 집중관리로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감소한 추석 보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내포=이지용기자

세종시 위반건축물 대대적 단속

14일부터 난개발 우려지역 등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난개발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하반기 위반건축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속에 들어간다.

세종시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속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사전 홍보기간을 거쳐 14일부터 연말까지 위반건축물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건축허가 및 신고 위반과 무단 신·축, 용도변경, 대수선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과 건축허가담당 직원을 2개조로 편성해 난개발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세종=김정환기자

Large advertisement for Daehyeon University featuring a night view of a modern building and text: '함께뿌리 깊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지혜의 도시"', '대전대학교', '혜화 리버럴 아트 칼리지', '입학안내 042-280-2800', '수시 2015.9.9(수)~9.15(화) | 정시 2015.12.24(목)~12.30(수)'

지역

통정

충남진로체험전 개막식



복기왕 아산시장= 9일 오전 10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충남진로체험전 개막식에 참석.

체육회임시총회



김홍태 당진시장=9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제24회 충남도민생 활체육대회 준비상황 최종 보고회에 참석, 오후 2시 소공연장에 서 열리는 노-노가 만드는 행복키움 출범식에 참석, 오후 5시 당진트레이닝센터에서 열리는 당진시체육회임시총회에 참석.

보훈선양대회



유기준 아산시의회 의장=9일 오전 11시 남산 안보공원에서 열리는 무궁수훈자 보훈선양대회에 참석

간부회의



이석화 청양군수=9일 오전 8시 30분 군수실에서 열리는 간부회의를 주재

충남진로체험전



심재진 당진교육장= 9일 오전 10시 아산시청소년교류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충남진로체험전에 참석, 오후 3시 당진시문화가족센터에서 열리는 2015평크로드링 도서관 개관식에 참석, 오후 4시 당진교육지원청에서 열리는 학업중단위기학생지원시스템사용자컨퍼런스에 참석.

충남진로체험전 개막식



김은자 청양교육장=9일 오전 10시 아산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제4회 충남진로체험전 개막식에 참석.

청남면 9월 기관·단체장 회의 열려

청양군 청남면(면장 김종섭)은 8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관내 기관단체장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문제점 및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맞이 환경정비 및 제조작업, 제1회 충청남도 어머니생 활체육대회, 제5회 충청남도 이동장 한마을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참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오는 27일 열리는 체육회 주관 추석맞이 민민노래자랑과 10월 2일 개최되는 제54회 청양군민의 날 기념 및 제18회 칠감문화제 준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9월 1일자로 공주고등학교로 전출한 천청남중학교 조종식 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그 동안 노고에 대한 고마움과 아쉬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종섭 면장은 "추석맞이 민민노래자랑과 칠감문화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관단체장들의 협조와 지원 부탁드린다"며, "올 추석에는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한 휴식을 취하여 우리고장 발전을 위한 에너지를 듬뿍 충전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태안군-충남도 상생 발전 밑그림 그려

8일 안희정 충남도지사 방문, 道-군 간 발전전략 공유하는 소통 계기 마련

태안군이 지난 8일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군 방문을 통해 군의 발전전략과 도의 비전을 공유하는 소통의 계기를 마련했다. 군은 민선6기 첫 시·군 방문에 나선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8일 태안군을 방문함에 따라 군청에서 한상기 태안군수를 비롯한 각계 인사 및 주민들과 안 지사 간 만남의 시간을 갖고 군과 충남도의 당면 현안을 공유하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안 지사의 이번 방문은 군민들에게 군과 관련된 각종 도정 현안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오는 11월 18일까지 진행되며, 태안군 방문은 15개 시·군 중 첫 일이다.



또한, 격렬비열도 연안항 개발 사업과 태안-보령 연륙교 건설에 따른 영목항 주변 연계 개발과 함께, 제70회 도민체육대회 태안군 유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나누며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 군은 이날 대화의 시간을 통해, 오랫동안 꿈어온 연안항 관광지 개발의 조속한 추진과 더불어 분리배출 등 실효성 있는 사업 진행을 위한 도 차원의 지속적 관심을 당부하는 한편, 지방도 603호선의 국도 승격 및 지방도 634호선의 국지도 승격과 확·포장 등 도로 개선 등 지역개발과 주민 생활 안전 및 편의 증진 분야에 큰 비중을 뒀다. 아울러, 대화의 자리에서 참석

의원과 군민들도 ▲이원-대산 간 연결 교량 건설 ▲보건의료원 공공보건의 추가 배치 ▲교통사고 예방 대책 추진 ▲노인복지관 확충 등 다양한 건의에 나서 호응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군은 이번 안 지사의 군 방문을 통해 군이 당면한 현안 사항의 조속한 해결을 적극 건의하는 한편, 군과 관련된 도정 현안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협조기로 하는 등 군과 도가 다함께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안희정 도지사는 "깨끗한 자연과 주민들의 우수한 질서정숙을 갖춘

태안군은 관광지로서 타 지자체에 비해 환경적 우위에 있다"며 "관광 도시 태안군이 최고의 휴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상기 군수는 "안희정 도지사와의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상호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안희정 도지사의 방문을 계기로 태안군과 충남도가 '희망찬 태안'과 '새로운 충남'을 이뤄낼 수 있도록 상호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환기자

서해대교 행담도 휴게소 양방향 회차로 개통

2000년개통이후 15년만에 양방향 회차로 개통 '시민불편 해소'



서해안 고속도로 최초로 당진행 담도 휴게소에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회차시설이 설치돼 10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행담도 휴게소는 하루 평균 8만 대 이상의 차량이 드나드는 서해안

의 대표적인 휴게소이나 그동안 당진시를 비롯한 행담도 이남지역 관광객은 회차로가 없어 행담도 방문 시 회차를 하기 위해서 서평택 IC까지 왕복 22km를 돌아와야만 했다. 휴게소 회차시설 설치의 당진시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시는 2000년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한국도로공사에 지속적으로 회차로 설치를 건의해 지난 2009년 12월 한국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 조성계획 입안에 틈새회차 시설이 반영됐다. 이후 2014년 행담도개발(주)의 대주주변경(씨티그룹→백원리자산운용)으로 유통형지구에 모다올렛이 들어서게 됨으로써 회차로설치가 가속화되어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회차로가 이번에 설치됐다.

이에 맞춰 시에서는 행담도 휴게소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당진시외버스터미널-기지시~거산3거리-이주단지~행담도휴게소 구간을 왕복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회차시설 개통일인 10일에 맞춰 개설했다. 휴일은 일 4회, 휴일은 일 5회 운행하게 된다. 시는 이번 회차시설 개통으로 두 자가차가 개설했기에 따라 행담도 휴게소 이용자가 크게 증가됨은 물론 앞으로 각종 관광휴양 시설이 들어서게 될 경우 서해안 시대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자리매김은 물론 시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아직 개발이 안 된 행담도내 약 15만 6000㎡ 부지에 대해 매각하기로 결정했으며 금년도에 가치평가를 완료 및 올해 안에 매각공고를 통해 매수업체를 모집할 계획이다. 당진=최근수기자

일교차 큰 환절기 가축 건강은 올바른 사양 관리로

폭염으로 면역력이 낮아진 가축종별 관리 힘써야



청양군은 환절기 스트레스로 인한 가축 질병 발생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비한 철저한 관리와 주의 당부하고 나섰다. 가을은 일교차가 10℃ 이상 나면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고 바이러스와 세균 등에 쉽게 감염

된다. 또 호흡기와 소화기 질병이 자주 발생하므로 축사 소독, 환기 등으로 쾌적한 환경 관리와 깨끗하고 질 좋은 사료를 먹여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 면역력과 체력이 약한 어린 가축은 온도와 습도 등 환경 변화에 많

가스과 바깥 온도를 고려해 적절히 환기한다. 체력 회복과 번식률 향상을 위해서는 질 좋은 사료를 먹이고 환기와 햇빛에 신경 써야 한다. 닭은 닭장 주변의 차단방역과 소독 관리가 중요하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병은 해마다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하므로 산란계 농가의 경우 11월 경 추가 예방접종하는 등 질병 예방을 위한 일련별 프로그램에 따라 철저하게 백신 접종 관리해야 한다. 특히 온도 유지를 위해 밀폐 사육하는 경우 암모니아 가스와 유해가스, 배설물, 먼지를 매개로 날아다니는 병원체에 의해 질병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환절기에도 최소한의 환기가 필요하다. 한편, 청양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난 여름 폭염으로 인해 가축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으므로 기후변화가 심한 환절기에 맞춘 세심한 관리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우리/동네



송익면, 아름다운 꽃길조성 제초 청소 봉사 아산시 송익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안치성, 부회장 김선애)는 지역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7일 꽃나루 화단 조성 및 제초·청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야외활동시 썩쓰기무시병 주의 당부

당진시, 예방수칙 실천과 의심시 즉시 병원방문

당진시보건소가 예년에 비해 기온이 높고 마른장마로 탈진되기 가능성이 높을 무렵에 따라 탈진되기 매개집합인 썩쓰기무시병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썩쓰기무시병은 탈진상태에서의 접촉에 따른 체내집투로 감염되는 병으로 수확기 농업종사자에게서 많이 발생되며 발생 초기에는 감기몸살처럼 고열,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여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질병이나 치료시기를 놓칠 경우 심할 경우에는 쇼크, 호흡부전, 의식저하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병이다. 보건소는 가장 좋은 예방법은 개인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라 강조하며 ▲눈·발에서 수확작업을 하거나 야외활동을 할 때에는 기피제가 처리된 긴소매의 옷을 입고 토시를 착용할 것 ▲풀밭 위에 옷을 벗어 놓거나 눕지말 것 ▲귀가후 옷을 즉시 분리세탁하고 목욕할 것 ▲휴식 및 새참먹을 때 돛자리불퍼서 앉고 사용할 것 ▲작업시에는 장갑, 장화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할 것 ▲특히 야외활동 후 두통, 고열, 오한과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말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아산장터 특별 할인 이벤트 운영



아산에서 생산되는 명품 농·축산품을 판매하는 아산장터가 추석에 맞아 특별 할인 이벤트(이하 특별 할인)를 진행한다. 이번 특별 할인은 명절에 꼭 필요한 제품들로 구성된 선물 및 채소 세트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것으로 이달 20일까지 진행되며 이벤트 상품으로는 한우선물세트, 채소 및 선물용 배·사과 세트, 한과 등이 있다. 특별 할인 이벤트는 홈페이지 접속 체크 이벤트를 통한 적립금 부여와 계절라 특가 판매, 웰빙 식품 선물 특가전이 있다. 한편, 아산장터는 자연 재해를 거의 받지 않는 천혜의 땅 아산에서 좋은 먹거리를 만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농부들이 모여서 장터를 연 곳으로 아산의 지역특산품을 직거래로 구매할 수 있는 소규모 시장이다. 복잡한 중간유통 없이 농가와 직접 연결돼 생산자 가격 그대로 공급하고 있으며,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100% 우리 지역특산품을 직접 소망할 수 있는 곳이다. 아산=리광주기자

추석 대비 환경오염 감시 강화

태안군, 내달 2일까지 관내 취약지역 87개소 중점 관리

태안군이 추석 연휴를 맞아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군은 오는 1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추석기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내 환경오염 취약지역과 폐수배출 관련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폐수 등 불법 투기 업체 등 중점감시 대상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군은 연휴전 사전 계도를 통해 자율 점검을 유도한 뒤 연휴 기간 공중주변 하천 등 오염의심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추석 후에는 배출시설 및 오염방지시설 등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시설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에 나서 환경오염 요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2개반 5명으로 단속 지도·점검반을 편성, 농공단지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취약지역 87개소에 대한 중점 감시에 나서게 되며, 단속 기간 중 환경오염 사업장과 고의·상습 환경법령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환경오염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고강도 관리·감독에 나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태안군을 찾는 귀성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보다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명절 이전부터 대대적인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에 나서기로 했다"며 "보다 깨끗한 태안군을 이뤄낼 수 있도록 관련 업체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환기자

특정

제3회 공주시 노인건강대축제



오시덕 공주시장은 9일 오전 10시 백제체육관에서 열리는 제3회 공주시 노인건강대축제에 참석, 오후 2시 종합민원실에서 시장과의 민원상담의 날 운영.

제8회 충남 장애인 풋살대회



김동열 보령시장은 9일 오전 10시 30분 보령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제8회 소방기술경연대회, 오전 11시 정심운동장에서 열리는 제8회 충남 장애인 풋살대회, 오후 1시 30분 보령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리는 공무원 SNS 홍보요원 발대식, 오후 2시 시청실에서 열리는 깨끗한 마을가꾸기 업무협약식 참석.

대한민국 친환경대상 시상식



이완실 서산시장은 9일 오전 10시 30분 서산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제19회 서산시노인회장이 개최된 대회에 참석, 오후 1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친환경대상 시상식 참석.

여성리더 역량강화 교육



박철걸 금산군수는 9일 오후 2시 여성 창의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여성리더 역량강화 교육 참석.

제19회 서산시여성대회 14일 열려

서산시는 '여성이 맘껏 웃는, 행복한 서산' 주제로 오는 14일 서산시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제19회 서산시여성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여성이 맘껏 웃는, 행복한 서산'을 주제로 '여성대회'를 개최한다.

서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송희자) 주관으로 열리는 이날 행사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및 여성동아리 발표회에 이어 평등팀과 화합팀으로 나눠 화합 한마음 게임이 진행된다.

또 현안을 수렴하여 어려운 계층의 아동을 돕기 위한 '사랑나눔 바자회'와 아동 및 여성 폭력예방 캠페인, 여성취업 상담서비스 등 부대행사도 함께 열린다.

여성단체 회원은 물론 일반여성 등 각계각층의 여성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산=김정원기자

충청수영권역 개발 본격 시동

보령시, 용역착수 보고회 가져... "문화유산 통한 명품 관광도시 만든다"

보령시는 보령을 대표하는 문화재인 충청수영성의 역사문화 가치를 높이기 위해 권역 개발을 위한 본격 시동을 걸었다.

시는 8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충청수영권역 개발촉진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충청수영성의 복원을 계기로 △충청수영성내 공공기관 이전 후보지 검토 △국도 40호선 우회 대체도로 개설 △보령항~보령신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량 건설 △홍보지구 담수시 발생되는 문제점 및 활용방안 제시 등의 순으로 이뤄졌다.

먼저 수영성내 오천면사무소 등 6개 공공시설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우체국과 농협은 기존 면 소재지로 존치하고, 그 외 시설은 충청수영 가용용지 부족에 따라 외부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했다.

또 충청수영권역 개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도40호선 우회 대체



도로 개설로 충청수영으로 복원과 천수만 관광도로 개설을 통한 천수만 일대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 보령신항~보령항~충청수영성~홍보지구로 이어지는 천수만 국제해양 관광 휴양지 개발 촉진과 해양 레포츠 산업 활성화를 한다는 것이다.

보령항~보령신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량건설도 검토했다. 이는 앞으로 중부지역 거점화만인 보령신항의 물류형 항구개발과 인근 영보산업단지, 고정국가산업단

지의 접근성 향상과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국가경제활성화로 이어진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홍보지구 담수시 발생되는 문제점과 활용방안도 논의했다. 홍보지구는 편리한 영농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와 수자원 확보를 통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계획으로 개발됐으나 그 기능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농업종합개발사업으로 수립된 홍보지구의

문제점을 검토해 최적의 활용방안을 고민한다는 내용이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항토문화유적의 보존은 후손의 의무인 동시에 사명이다"며, "보존과 함께 권역개발로 미래의 성장 동력인 문화유산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명품 관광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수영성은 조선 초기에 설치돼 고종 33년(1896년)에 폐영됐고,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당시 군인 142명에 수군 병력이 총 841명에 이르렀다고 전해진다.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성지(城址)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형이 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고, 충남의 수군 편제와 조직 등의 자료가 남아 있어 높은 역사적, 학술적 가치로 2009년 8월 사적 제501호로 지정됐으며 내년 3월 용역이 완료되면 이후부터 복원과 권역 개발이 동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령=김태성기자

범시민 친절운동 캠페인 전개

공주시, 세계적 역사도시로 도약... 관광객 친절서비스 제공

공주시민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가진 도시의 시민으로서 품격 높은 시민의식을 갖추고 웃음과 친절이 넘치는 예의 바른 도시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8일 시민과 사회단체, 공무원 등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품격 높은 시민의식 함양을 통한 세계적인 역사도시로 도약을 위한 범시민 친절운동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1천여 명의 시민들은 공주시청 광장에 집결, 세계유산도시에서 살고 있는 공중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항상 친절하고 밝은 모습과 단정하고 복장과 공손한 언행으로 관광객을 맞이할 것을 결의하고 공산성까지 가두 캠페인을 전개했다.

시는 이날 캠페인을 계기로 '웃음과 친절이 넘치는 예의바른 세계유산의 도시 공주'를 만들어 세계유산 등재에 힘입어 예년보다 3배 이상 지역을 찾고 있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열리는 제61회 백제문화제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로 인해 예년보다 많은 1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공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공주의 미소로 세계유산 도시에 걸맞은 서비스 제공에 모든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이번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 택시 있는 안내와 정갈이 넘치는 친절한 손님맞이, 내 집 앞 화분 가꾸기, 백제복 착용하기, 내 집 앞 및 상가백제 등 달기 등이 범시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오시덕 공주시장은 이날 캠페인에서 "우리에게는 공주시를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이 주어졌다"며, "우리가 관광객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세계유산도시 공주, 역사문화도시 공주의 위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시민 여러분이 보여준 역할을 믿고 있다"며, "미소와 친절로 다시 찾고 싶은 공주시를 만들어 가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주=정성범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today.com

(재)공주시한마음장학회, 제3차 이사회 열어

우수장학생 선발 근거 마련



(재)공주시한마음장학회(이사장 오시덕, 이하 장학회)가 지난 7일 공주시청 소회의실에서 2015년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지난 7월 열린 제2차 장학회에서 의결된 신입생과 유공자 자녀에 대한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 기준 명확화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우선 장학회는 매년 초 선발하던 성적우수장학생 선발에서 신입생의 경우 선발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선발시기를 하반기로 미루고 고등학생은 직전학기 과목별 석차 3등급 이내 70%이상, 대학생은 직전학기 평균 A 학점 이상인 학생 중 학교장 또는 장학회 임원의 추천을 받은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시정참여와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 유공자 자녀 성적우수장학금도 신설, 공주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의 노고를 치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유공자 자녀 우수 장학생은 전년 7월부터 당해 연도 6월까지 시정발전유공자로 선정되거나 당해 연도 일정기간 자원봉사마일리지 200시간 이상인 자, 공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천한 자의 자녀 중 고등학생은 직전학기 과목별 석차 4등급 이내 50%이상, 대학생은 직전학기 평균 B 학점 이상인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키로 했다.

한편 이번엔 신설된 신입생 성적 우수장학생과 유공자 자녀 우수 장학생 선발은 오는 10월 공고가 꺼져 11월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주=정성범기자

우리/동네

금산군 불법 현수막 단속강화

지정계시대 4조 23면 증설... 도시이미지 개선

금산을 도시이미지가 한층 나아질 전망이다. 읍면초부터 현수막을 불법으로 설치하지 않도록 지정계시대 추가가 설치됐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금산군은 현수막 지정계시대 설치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했으며 이번에 금산을 지역 3개소에 4조 23면을 완료했다. 이달부터 본격적인 활용에 들어갔다.

또한 교차로 주변에 어지럽게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신호등, CCTV, 가로등을 통합한 통합지주대를 설치, 주요시거리의 가로등주를 이설·정비하는 등 현수막의 불법 설치 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했다.

군에서는 현수막을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앞으로 불법 현수막 단속을 대폭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적인 현수막의 부분별한 계시로 인해 도시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며 "이번 계시대 증설을 계기로 법을 지키는 준법정신이 정착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금산=김남규 기자

생강 웃거름 적기 사용 당부

서산시, 이달 하순까지 2차 웃거름 적기

서산시는 생강 비대를 위한 웃거름을 적기에 적정량 사용하도록 당부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웃거름은 8월 하순에서 9월 하순까지 주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생강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9월부터 괴경(덩이줄기)의 생육이 본격적으로 왕성해지며 비대해진다.

웃거름은 10kg당 단용비료일 경우 요소 15kg, 연화칼리 12kg, N-K 복합비료는 40kg정도가 적당하다.

특히 웃거름을 줄 때는 질소질과 칼리질 비료를 동시에 주는 것이 좋으며 흡수력이 약한 토양에서는 나누어 주는 것이 좋다.

시 관계자는 "적기에 웃거름을 주어 생강비대 촉진과 더불어 9월 늦잠기에 뿌리썩음병 발병이 급격히 확대될 우려가 있으니 병해충 방제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 문의는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662-5959로 하면 된다. 서산=김정원기자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 박차

금산군, 쫄쫄기무시증 등 9~11월 사이 집중발생

금산군보건소는 쫄쫄기무시증 등 가을철 발열성질환이 대부분 9~11월 사이 집중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가을철 추수기를 앞두고 집중 홍보활동에 나섰다.

가을철 발열성질환은 등질 등 설치류의 배설물과 접촉하거나 감염된 탈진드기에 물렸을 때 감염되는 질환이다.

이에 금산군보건소는 읍·면별로 중점 예방활동을 홍보하는 한편 기피제와 토시, 홍보전단, 포스터 등을 배포하고 순회 예방교육을 실시 하는 등 대대적인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군보건소 관계자는 "가을철 발열성질환 감염예방을 위해서는 야외활동 시 긴 옷 등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풀밭 위에 옷을 벗어놓고 눕거나 잠을 자지 말아야 하며 휴식, 새참을 먹을 땀 뚝뚝을 펴서 씻고, 작업용 풀쉴에 얇아서 용변을 보지 말고, 활동 후 즉시 샤워나 목욕을 하여 진드기를 제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야외활동 후 두통, 고열, 오한과 같은 심한 감기증상이 있거나 벌레에 물린곳이 있으면 지체 말고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산=김남규 기자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 만들기

그리스트랩 청소 및 유지 보수

학교, 병원, 식당 등 주방 및 급식실 그리스트랩 청소 관리

싱크대, 그리스트랩, 아수구, 정약조 등 폐기물 폐색으로 인한 보수공사 전문

악취, 아수구 막힘, 전염병 예방.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지 않고 전문 장비를 사용하여 환경을 오염 시키지 않습니다.

대한광역시 예비 사회적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하나위는 고용노동부와 한국 사회적기업진흥원의 **대한광역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약하고 있습니다.

대한광역시 서구 월평동 291번지 월빙시티빌 403호 **문의전화: 070-8289-1700**

(주)하나위 www.hanawee.com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브의 사랑 (MBC오전7시50분)



강모(이재황)와 송아(윤세아)는 떨리는 심정으로...

▲별이 되어 빛나리 (KBS2오전 9시)

해방촌으로 들어온 정래네 식구들은 잠시만 숨...

케이블 명화

▲끝까지 간다 (OCN후 4시40분)

완벽하게 숨긴 줄알았다...! 어머니의 장례식 날, 급한 연락을 받고...

아내의 이혼 통보, 갑작스런 내사 소식까지, 스트레스 폭발 직전의 건수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 어떻게든 모면해야 하는 건수는...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눈이 나타났대!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정체 불명의 목격자...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정체 불명의 목격자...

끝까지 간다!



문대(균용) 시설물을 훔치는 행위를 하기로 한다. 한편, 동필의 사무실을 찾는 미순은...

▲어머님은 내 며느리 (SBS 오전8시30분)



양희장의 초대를 받은 성태는 양희장의 집으로 향한다. 성태를 본 경숙은 기겁을 하고...

한편, 수경은 경민에게 경민의 마음을 조스레 묻고 호감을 보이는 경민의 모습에...

스파이더맨 3 (채널CGV 오후5시50분)

대중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난 스파이더맨...

한편, 피터의 삶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직장 동료인 에디 브룩토퍼...

전이되어 가장 강력한악당인 배놈으로 진화한다.



프로그램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TJB/SBS, CMB, and EBS, listing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맘의 결실 빛나는 정명인! 충남장애학생체육대회서 쾌거

제3회 충남장애학생체육대회 금3 획득



공주정명학교교장 서종영(왼쪽) 육상 3회 충남장애학생체육대회에 참가...

서산시 파크골프연합회, 파크골프대회 종합 우승

충남도내 11개 시군 150여명 참가



서산시 파크골프연합회회장 김 광우가 충남도내 11개 시군 150여...

아산성심학교, 체육 꿈나무 학생들의 멋진 비상



아산성심학교교장 윤경희는 4일, 예산공설운동장에서 열린 '2015 충청남도 장애학생 체육대...

아산시, 9월 행복아산

시민아카데미 개최



아산시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이성연)는 오는 16일 오후7시, 여성회관 공연장에서 '미림의 땀, 진...

「네티즌이 만나고 싶은 사람 1위」

「대학생이 존경하는 인물 1위」, 「세상을 밝게 만든 100인」으로 선정된...

이번 강연은 가능성과 두려움이 50대50으로 팽팽할 때, 하고 싶은 마음과 망설이는 마음이 대등하게...

강좌는 별도의 신청 없이 시민 누구나 참석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편 다음 강좌는 오는 11월 25일 개그맨 정종철 강사를 초청해...

아산=리량주기자

Advertisement for Daejeon Today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logo.

케이블 & 위성방송

Table listing various cable and satellite TV channels and their program schedules.



대전인재육성정책재단, 충남대 로스쿨에 장학금 지난 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손종학) 학생 15명에게 2015년도 하반기 로스쿨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한국농아촌공세종·대전·금산지사, 장애인 가정 주거환경 개선 지난 8일 금산군 군북면 호티리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 유모(48)씨 가정에 화장실 설치를 비롯한 '농아촌 집 고쳐주기 행복추진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청양군 대치면농업경영인회, 독거노인에 김치냉장고 선물 지난 7일 관내 독거노인 박모씨(78) 가정을 방문, 8월 28일 개최된 제26회 청양군농업경영인 가족화합대회에서 경품으로 받은 김치냉장고를 전달했다.



청양읍 명예환경감시봉사단, 청정 환경 지킴이로 활동 이어가 청양읍 명예환경감시 봉사단이 청정 청양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어 지역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온천2동새마을부녀회배추김치 담취 전달 지난 7일 새마을지도자 30명이 파트를 나눠 맛있는 배추김치를 정성으로 담취 어려운 이웃 40세대에 전달했다.



도로공사 대전청정본부, 여성기업 구매상담회 개최 한국도로공사 대전청정본부(본부장 김경일)는 8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와 함께 본부사옥에서 관내 여성기업 대표자를 초청, 여성기업 구매상담회를 가졌다.

한국중부발전(주) 보령화력본부, 어려운 이웃에 새 보금자리 선사 사랑이 가득한 집 러브하우스 11호점 오픈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본부장 유성중)는 8일 어려운 이웃에게 새 보금자리를 선사하는 『사랑이 가득한 집 러브하우스 11호점』 오픈식 행사를 보령시 남포면 양향리 준공현장에서 가졌다.

오픈식에는 김동일 보령시장, 최재용 남포면장을 비롯하여 마을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보령화력본부 풍물단 '보화선명' 동호회원들의 식전공연이 행사장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이번 러브하우스 11호점의 주인공은 박 모씨(59세/여)로 기초생활보장수급비 및 장애수당 등 정부지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노후 된 농가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우천시 누수와 벽면 균열 등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조속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사랑이 듬뿍 담긴 박 모씨의 새

보금자리는 보령화력본부 임직원의 자발적인 성금과 회사 지원금·나눔기금으로 지어졌으며, 동아인재대학교 총동문회에서 내부집기류(TV, 냉장고, 세탁기, 가

스테인지 등을 후원하였으며 부엌과 화장실, 현관, 거실 등을 갖춘 41.02㎡ 규모의 조립식 스틸하우스이다.

박 모씨는 서툰지만 보금자리를 마련해준 보령화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였고,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들도 행복해 하는 박 모씨를 보며 보람을 느꼈다.

보령화력 유성중 본부장은 "임직원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보람이며, 나눔과 베품에 대한 따뜻한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보령화력이 되겠다"며 "앞으로도 박모씨와의 인연을 이어나갈 것이며,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보령=이정복기자



건보공단 서부지사,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대전지부와 설명회 개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필요성 설명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서부지사 서지사장 한길호는 8일 오전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대전지부(회장 정자) 회원을 대상으로 심각한 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앞으로 10년간 운영할 공단 경영전략인 "2025 뉴비전 및 중장기 경영전략"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겪으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계획(전자건강보험증(IC카드) 제도 도입과 포괄간호서비스 제 조기 확대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현재의 종이 건강보험증 제도로는 환자의 이동 경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병·의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다는 비판에 따른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 제도 도입과 가족 등이 돌보는 간병 문화는 간병의 집을 털어뜨릴 뿐만 아니라 감염이 확산되는 요인이 됐다는 비판이 있었던 점을 반영한 포괄간호서비스

제 조기 확대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전자건강보험증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막기 위해 성·연령·이름 등 기본적인 사항만 입력하며, 병원에서는 IC카드를 입력하면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은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병원의 편의성도 올리면서 환자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간호사 등이 환자를 돌보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예정보다 앞당겨 2018년부터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 해 간병서비스 질을 높이면서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건보공단 서부지사 한길호 지사장은 "매년 연말에 국가건강검진이 집중되어 검진 예약이 어렵고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는데 올해는 메르스 사태 때문에 연말 집중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서둘러 건강 검진을 받아줄 것"을 강조했다. 송병배기자



둔포면, 행복키움추진단 합동 봉사활동

아산시 둔포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여진석)와 둔포면 행복키움추진단(위원장 여진석)은 지역 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7일 둔포면 신남리에 소재한 장애인보조시설 '사랑의 집 에덴'을 찾아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에는 양 단체 회원 30여 명이 참여해 제조작업과 함께 주변 환경 미화를 실시하고 올 가을 김장담기에 소재한 장애인보조시설 '사랑의 집 에덴'을 찾아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세한대학교 - 베트남 국방부 제4직업대학 문화 교류 및 교육발전 위한 협약 체결



세한대학교(총장 이승환)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베트남 국방부 제4직업대학(총장 LEDUC DUNG)을 방문해 한국, 베트남간의 문화교류 및 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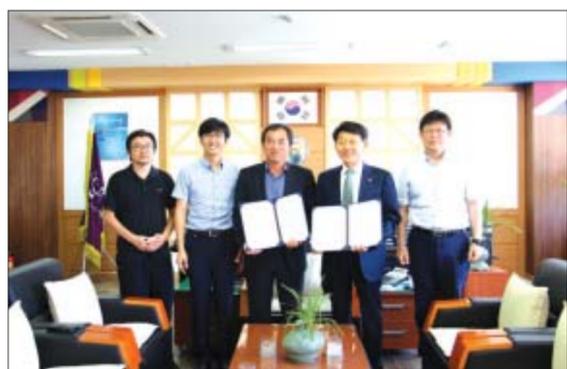
세한대학교는 베트남 국방부 제4직업대학을 방문해 강의 현장 시

찰 및 학생 면담을 통해 세한대학교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향후 양교가 협력해 베트남 국방부 제4직업대학 내에 "한국어교육센터"를 설립해 한국어 교육 및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당진=최근수기자

한국폴리텍특성화대학 바이오캠퍼스·운산공업고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협력’ MOU체결



한국폴리텍특성화대학 바이오캠퍼스(학장 이배섭)는 8일 대학본부에서 운산공업고등학교(교장 류재홍)와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배섭 학장은 "학벌보다 능력 중심 사회의 구현을 위해 기업과 학교가 함께 노력하는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을 정착하기 위해 한국폴리텍특성화대학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 **등정** ●●●

지역희망박람회

안희정 충남도지사 = 9일 오전 10시30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2015지역희망박람회에 참석. 오후 5시30분 세종베어트리파크에서 열리는 충청권 시·도지사-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

충남진로체험전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 9일 오전 10시에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제4회』에 참석.

김진호 **홍성의료원장**
국무총리 표창 수상



7일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1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행사에서 김진호 홍성의료원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표창은 국민의 복지향상과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를 선정 시상하는 상이다. 김진호 홍성의료원장은 5대, 10대, 11대 홍성의료원장 및 홍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주민들을 위한 포괄적이고 공익적인 보건의료사회사업을 통해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복지태백 증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한편 홍성의료원은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맞춤형 공공보건의료사업을 발굴하고 분야별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치매 및 만성질환관리, 정신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 등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내포=이지용기자

청양군보건의료원, 제2기

건강한다이어트교실 회원 모집

청양군이 지역주민 비만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2기 건강한다이어트교실을 오는 2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운영되는 다이어트교실은 8주간에 걸쳐 영양교육 및 개인별 식사일지 작성에 따른 상담, 근력운동, 유연성운동, 에어로빅 지도 등으로 편성돼 월·수·금요일 주 3회 운영되며, 프로그램 참가비는 없으나 프로그램 시작과 종료 시 2회에 걸친 혈액검사 비용은 자부담이다.

이를 위해 군 보건의료원은 체질량지수(BMI) 25 이상자 및 체지방률 30% 이상자로 15명의 대상자를 모집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군 보건의료원 체력단련실로 전화(940-4538~9) 상담 후 방문하면 된다. 청양=정성범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www.daejeontoday.com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정대로 39-39 대정빌딩 7층

기고

새로운 효(HYO)의 패러다임



고무열
한남대 학교(성)폭력예방운동본부
부본부장

으며 그들은 그것을 운명으로 순응하며... 새로운 효(HYO)의 패러다임

그러나 구한말부터 서서히 반상의 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상업의 번성과 더불어 경제적 힘이 있는 사람에게 권력이동이 일어났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사회는 급속도로 혼란의 시기를 겪는 과정에서도 과거 역눌렸던 설움에 한풀이라도 하듯 성공과 학구열이 뜨거워

과거부터 내려오던 밥상머리 교육이나 가풍 그리고 효 문화가 치열한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었으니

우리는 한국전쟁 후 새미를 운동의 정신과 함께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이루었고 타 국가에 견주어 월등한 경제발전을 보였으며 과거와 비교하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것은 사실이다.

교육은 인성교육이 결여된 임시 위주의 교육으로 방황이 늘어났다. 인성이 없는 교육은 사회성이 부족하고 독립심이 약해 스스로 사회적

가정폭력의 82%가 가정에서 일어난다. 어느 학부모는 전국 5,000등을 한다고 자녀를 구타했는데 알고 보니 교내에서는 1등 학생이었다.

이젠 효의 의미를 단순히 부모를 봉양하는 차원을 넘어야 한다. 그 개념을 확대하고 충과 효 그리고 인성을 바탕으로 한 예절과 봉사까지

시대가 급속도로 변화된 것을 인

정하고 직시하여 우리 몸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과거의 효 개념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요즘의 젊은 세대는 먼나라

급속한 경쟁사회의 변화와 핵가족 형태로의 구성 인의 변화 그리고

효의 중요성을 역설하기 전에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였고 교육의 목표와 방향이 얼마나 다양화

영구적인 것 같은 대재국도 허망하게 쇠락하는 원인은 사회의 질서가 파괴되고

과거 농경사회의 효의 개념과 산업화 시대를 거쳐 정보화 시대에 사는 현재는 많은 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고

바다와 육지를 넘어 이제는 하늘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그러면, 갑자기 산림청소속 헬기가 다른 헬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선회하다가 균형을 잃고 추락해

헬기는 재난 시 산악이나 도심 등 사고발생 장소와 교통상황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현장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대응수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재난현장에서 동원된 헬기를 체계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재난피해를 효과적으로 막지 못할 뿐 아니라

현재 헬기는 국가안보, 국민안전, 치안 등 대민 공익분야는 물론, 일반 기업의 경영, 생산 활동 등의 여러 분야에서 다목적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재난발생 시 우리나라 각 기관에서 동원 가능한 헬기는 소방 27대, 경찰 19대 등 약 137대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들 헬기에 대한 국가차원의 통합휘체계가 정립되지 않아 효율적인 현상대응이 미흡하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는 헬기를 운용하고 있는 국방부, 경찰청 및 산림청 등 국가기관의 헬기를 재난현장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재난발생시 실제로 지휘체계가 작동되도록 매년 통합훈련도 지속적으로 실시 계획이다. 또한, 오는 2017년까지 각 국가기관 헬기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들 헬기를 보유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는 헬기 운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사후 정비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전문가의 확충, 기상악화 시 운항제한 등

소방헬기를 비롯한 해경의 구조헬기, 산림청의 산불진압헬기, 군·경찰의 구조헬기의 사회 공익에 대한 기여도와 그 위상은 매우 높아졌다.

더욱이, 일상생활 속에서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부여된 본인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국민들의 헬기를 재난현장에서 보호할 수 있는 역량도 사회 공공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

특히, 헬기를 보유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는 헬기 운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사후 정비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전문가의 확충, 기상악화 시 운항제한 등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 했다. 한 손으로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제 헬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안전사고로부터 자유롭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기고

추석전후 부정불량식품 근절하자



이영만
태안지구대장 겸감

석이 있다. 추석에는 조상의 은혜에 보답코자 정성들여 제사음식을 준비하고,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 두손에는 선물을 한가득 준비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명절에는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식품이나 정부 비축 농축수산물의 공급이 확대되다보니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우선

독한 소비자들 많이 찾아야 했다. 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부터 울바른 소비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값싼 제품만을 우선하는 소비습관은 버려야 하고, 제품 구입시

더불어, 소비자 모두가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감시자로서 불량식품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적극적인 신고로 유통초기부터 뿌리 뽑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에서도 추석전후를 맞아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차려용·선물용 식품 관련 위해 식품을 수입·제조·유통하는 행위, 차려용품 등에 대해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속이는 행위, 선물용 농·축·수산물, 건강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 기타 국민안전

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올바른 소비습관과 신고정신이 관련기관의 정화노력과 어우러져 안전하고 좋은 먹거리가 풍성한 한가위가 되었으면 한다.

사설

부끄러운 한국 자살률 낮춰야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높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기는 비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OECD 건강 통계 2015(Health Data 2015)를 보면, 2013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자살로 인한 평균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2.0명이었다.

한국 2012년 기준은 이보다 훨씬 많은 29.1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였다. 자살 사망률 상위권에는 2위 헝가리(19.4명), 3위 일본(18.7명), 4위 슬로베니아(18.6명), 5위 벨기에(17.4명) 등이 포진해 있었다.

자살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터키(2.6명)였다. 그리스(4.2명), 멕시코(5.0명), 이탈리아(6.3명), 이스라엘(6.4명) 등도 자살률이 낮은 국가에 속했다.

1985년부터 자살률 추이를 살펴보면 OECD 국가 대부분은 점차 줄어들지만, 한국은 2000

년을 기점으로 오히려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도 자살률이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2010년 이후에는 감소세를 나타내는 것과 대비된다.

게다가 우리나라 국민은 다른 OECD 회원국 국민보다 자신의 건강상태도 좋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주관적 건강상태 양호 생각 비율은 한국이 35.1%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았다. OECD 평균은 68.8%였다. 국민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있는 국가는 뉴질랜드(89.6%)였다.

대부분 OECD 국가들에서 15세 이상 성인 인구의 흡연율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2013년 기준 한국의 성인인구 흡연율은 19.9%로 OECD 평균 19.8%와 비슷했다.

한없이 부끄럽고 안타깝게 짝이 없는 높은 자살률을 낮출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가계대출 급증에 연체율 상승세라니

저금리에 주택거래가 늘어 7월 은행권 가계대출이 7조3000억원 증가했다. 연체율도 소폭 상승했다.

금융감독원은 7월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잔액이 1295조5000억원으로 전월말 대비 5조8000억원(0.4%)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가계대출은 527조1000억원으로 7월 중 1조1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7월중 안심전환대출의 주택담보대출(MBS) 유통화 금액(6조2000억원)을 감안하면 실제 가계대출은 전월말 대비 7조3000억원이 늘었다.

금감원은 저금리 및 주택거래 호조로 인해 가계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기업 대출 가운데 대기업 대출은 179조5000억원으로 7월중 1000억원 늘어난데 그쳤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 대출은 558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1000억원 늘었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2달만에 상승세로 돌아

섰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4%로 전월말(0.42%) 대비 0.02%포인트(p) 증가했다. 특히 신용대출이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을 견인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67%)은 전월말(0.61%) 대비 0.06%포인트(p) 상승했다. 반면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5%로 전월말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7월 중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84%,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90%로 전월말 대비 각각 0.16%p, 0.12%p 상승했다.

7월말 원화대출 연체율은 전월말 대비 0.08%p 상승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하락하는 등 개선추세 지속되고 있다. 다만, 취약업종의 부실화 가능성 및 가계부채 증가세 등 리스크 요인이 증가하고 있음은 적시할 필요가 있다. 가계 부실화를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오늘의 소사

Table with 2 columns: Year and Incident Name. Includes events like 2015년 신원 1호, 2014년 김연아 저지, 2014년 경희대 교내 화재, etc.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ddress: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大田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발행: 편집인 김현정, 회장 김성구, 편집국장 한대수, 논설위원 조경호, 전화안내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매달안내 042)538-1602, 광고신청안내 042)538-1603, 구독료 월 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종로동 63-2, 팩스 02)392-5143,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제3회 한국효행청소년 효행사례 전국경진대회



슬로건

효(孝)는 실천입니다

효행이 효순이

단기에 대한 맹세문

나는 자랑스런 원정방(단기)기 앞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며 사회에 봉사 잘하는 착하고 성실한 청소년이 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취지

-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인 청소년을 중심으로 효(孝)와 새로운 인성예절문화 창달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 및 성장 동력원으로서의 핵심적인 정신문화를 부흥하고자 함
-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웃어른 및 스승을 공경하고 효행심을 유발 하여 효행을 실천한 우수한 사례를 발굴, 널리 보급하여 일반화하기 위함
- 수상자들은 상급학교 진학 시 효와 인성예절분야에 대한 스펙(부가점)으로 활용 기대됨

참가자격

- 전국 초·중·고 대학생

원고 내용 및 규격

(내용) - 일상 생활속에서 꾸준한 효행실천으로 모범이 되는 사례

- 경로효친 생활이 내면화되어 실천한 사례
- 기타 여러 상황에서도 효행을 실천하여 모범이 되는 사례

(원고분량) A4용지 2쪽 이내
(원고규격) 여백: 위-30, 아래-20, 왼쪽-오른쪽-25,
글씨크기: 제목 15, 글씨 12
글씨체: 바탕체

원고 접수

- 접수기간: 2015년 09.1(화) ~ 10월 2(금) 18:00시까지 도착
- 접수방법: 이메일, 인편, 팩스 혹은 우편접수
- 이메일 주소: seoshi1236@harmail.net / b3s1405@harmail.net
rhee8165@harmail.net / kean702@harmail.net / hih2000@harmail.net
- 팩스번호: 042)536-9116, 042)536-9117
- 우편주소: 352-96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로134-17 동명빌딩 301호

한국효행청소년단

-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 ※ 필요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대회일정

- 원고접수: 2015. 09. 1(화) ~ 10. 2(금)
- 심사결과 발표: 2015. 10. 16(금)
- 사례발표 및 시상식: 2015. 11. 06(금), 15:00~16:30
- ※ 입선자는 개별 통보 및 다음카페: 한국효행청소년단 발표
- ※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자는 대회 당일 사례를 발표 할 수 있음, 단, 부득이한 경우 본인이 작성한 동영상자료로 대신할 수 있음.

시상내용

각급 학교별 1편씩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단체상, 지도교사상

대회 및 시상식장소

대전광역시교육청 대강당

기타

작품에 소속(학교, 학년, 반), 연락처가 누락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기재바람.
*수상자는 추후 주민번호, 주소 받음.
한국효행청소년단 카페 참조(<http://cafe.daum.net/KFPYF>)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람
대표전화: 042) 537 - 9115 / 042) 582-0057

사무총장: 송경숙 (010-9403-6848)
총재: 서성애 (010-2015-8969)

주관: 한국효행청소년단
후원: 大田투데이,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주교육대학교, 대전광역시 서구청,
정원교육, 교원시니어직능클럽, 효(孝)협동조합
“효는 인성예절의 근본입니다”